

푸른신문



2021년 12월 16일 목요일 제 1,199호

달서 · 달성 지역신문

창간: 2000년 10월 31일 / 주간 T.053)572-6000

감삼동 찌개집

달서구 당산로41길 120
070-8911-1111



호주식 커피전문점
Coffee bite.

감삼점 070.8911.2222

[I I I I]

M T G.
coffee & bakery

대구 달서구 감삼남길 144 1층 엠티지

포장이사 전문업체 · 보증보험가입업체

효성익스프레스

항상 우리집을 이사한다는 마음으로 일해오고 있습니다

무료전화 080-7824-080

대표전화 521-7824
635-7824

달서점 654-7824 수성점 794-7824 북구점 355-7824
논곡점 611-7824 화원점 639-7824 남구점 473-7824



소도독 대구용산역점

예약문의 053-567-8116
대구시 달서구 장기동 811-6

SHIN Woo
advertisement

신우애드

간판·현수막·인쇄·판촉물·시공전문 업체

Tel 010-7563-4454 Fax 070-7502-4200
대구광역시 서구 북비산로 72길 18 (비산동 531-8)



흑흑~~ 고기가 너무 맛있어~

죽전동 고령 참숯구이

죽전역에서 푸른방송 방면 골목길로 조금만 걸어가면 있는 고깃집!

고령 참숯구이에 가봤습니다.

입구에서 상남자 스타일의 사장님이 시원하게 웃으면서 맞이해주십니다.

가게 메뉴판을 보니 돼지 모듬 특수부위가 다른 메뉴보다는 크고 선명하게 표시되어 있어서 어느 부위인지 신기해서 다른 메뉴를 볼 겨를도 없이 바로 주문했습니다.

고기를 준비하시는 동안 미리 나온 반찬이 너무 맛있어서 '이제 고기만 맛있으면 여기는 맛집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빨간 숯불이 들어오고 이내 주문받고 즉시 썰어주신 싱싱한 돼지 모듬 특수부위가 나왔습니다.

사장님이 테이블에 고기를 올려주시면서 "굽는 순서가 있어요~ 기름이 적은 부위부터 올려서 먹어야지 고기의 맛을 느끼면서 먹을 수 있어요!"라고 하시며 뒷고기(뒷통살), 가브리살, 항정살, 삼겹살 순으로 세팅된 고기 접시를 올려주셨습니다.

고기 옆에 생뽕맛게 대파가 올려져 있어서 사장님한테 여쭙보니 대파를 구워서 고기랑 같이 먹으면 맛이 배가 된다고 먹는 팁을 알려주십니다.

구운 대파랑 고기랑 같이 먹으니 느끼함도 잡아주고 고기만 먹었을 때보다 더 맛있었습니다.

고령 참숯구이엔 비법 소스가 두 가지 있습니다. 바로 핑크소금이란 맵젓입니다!

맵젓은 제주도에서 고기 먹을 때 함께 찍어 먹어서 이미 많이 알려진 소스인데, 액젓과 갈치젓으로 만들어지는데, 마늘 몇 알과 함께 끓여주면 비린내가 감칠맛으로 변하는 마법이 일어납니다.

또, 사장님이 갈치속젓이란 맵치 액젓을 다진 다음 채에 걸러 사장님만의 비법 양념을 따로 추가해서 만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핑크소금은 일반 고깃집에서 나오는 가는소금이 아니라 굵은소금으로 핑크색을 뽐니다. 천일염을 직접 구워 사장님만의 비법 가루를 넣어 만들어진 특이할 거 없는 특제 소스라고 하십니다. 한입 먹어

보면 일반 소금에서 느껴지는 뒷맛은 쓴맛이 전혀 없고, 살짝 짭짤하면서 끝 맛은 달달하고 감칠맛이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고기입니다.

사장님은 항생제를 안 쓰는 친환경 돼지라며 고기를 자신 있게 소개하셨습니다.

친환경 돼지는 사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항생제를 쓰지 않고 넓은 공간에서 햇빛을 보며 자유분방하게 키운 돼지를 말합니다.

또, 뒷고기 뒷통살은 제주 백돼지를 사용한다며, 제주도 돼지가 좋은 환경에서 자라서 신선하고 식감도 좋다고 하십니다.

사장님은 손님들이 믿고 먹을 수 있게 음식에 대해 하나하나 소개를 다 해주시며, 팁도 알려주십니다.

특수부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죽전동 고령 참숯구이 매력에 빠져 보시는 건 어떨까요~?

너무 맛있어서 눈물 흘릴지도 모릅니다~^^

박신영 기자

대구시 달서구 죽전길 13 고령 참숯구이 / 예약문의 053-563-9008

정부지원사업, 알고 계시나요?

저신용 소상공인 최대 2,000만 원 융자지원!!

접수기간: 11월 24일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누리집 (<http://ols.sbiz.or.kr>)

☎ 1811-7500 (소상공인 정책자금 콜센터) / ☎ 1357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소상공인 권익 보호를 위한
소송 및 변호사 비용 지원!!**

[**무료법률지원사업**] 보증금 / 임대차 / 신용불량 / 상거래 소송 등

☎ 국번없이 132 (대한법률구조공단)

폐업 소상공인의 안전한 사업 정리 지원!!

[**희망리턴패키지**] 철거비 지원 / 법률 자문 / 사업 정리 컨설팅 등

신청: 온라인 (<http://hope.sbiz.or.kr>)

※ 정부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푸른방송과 푸른신문이 지역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견디고 있는 우리 지역 달서구 달성군의 **중소상인들에게 힘이 되고자** 기획 기사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기획 기사를 통해 가게 **홍보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민들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가 필요하신 분은 푸른방송 551-2000, 푸른신문 572-6000로 연락 주십시오.

- * 1.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푸른신문에 제보해 주신 기사가 게재되신 분께는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15면 상세 내용 참조
- * 2. 사랑하는 사람, 보고싶은 사람, 고마운 분들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보내세요.
사연과 관련 사진, 동영상 등을 푸른방송 제작팀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이메일 gcsup@gcs.co.kr)

푸른방송
홈페이지 QR코드



푸른신문
홈페이지 QR코드



두류1·2동행정복지센터 신축 이전 개소

달서구(구청장 이태훈)는 두류1·2동의 열악한 청사환경 개선과 주민편의 시설 확충을 위해 복합 신청사를 건립해 지난 13일(월) 두류길 141-8으로 이전 개소했다.

두류1·2동은 지난 2011년 5월 9일 소규모 동 통합계획에 따라 두류1동과 두류2동을 합쳐 舊두류1동 청사(성당로 51길 32)에서 현재까지 운영돼 왔다.

좁은 연면적과 노후된 시설로 인해 신청사 건립의 필요성이 오래 전부터 요구돼 왔으나, 이전에 적합한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었다.

그러나 구청과 주민대표 등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지난 2019년 신청사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건립을 추진했다. 2020년에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시비를 추가로 확보하게 됨에 따라 당초 계획보다 시설을 확대해 지하 1층/지상 5층, 연

면적 1,667㎡ 규모로 지난 11월 말경 준공을 마쳤다.

달서구 두류길 141-8에 위치한 두류1·2동 신청사는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만큼 주민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복합청사로 건립됐다.

1~2층은 동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 예비군동대, 3층은 취미·교양 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주민자치센터, 4~5층은 두류은빛복지관을 배치해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2

막 인생학교와 북카페 등이 곧 문을 열 준비를 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크다. 한편, 현 청사 부지에는 지역 내 주차문제 해소를 위한 마을단위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태훈 구청장은 “신청사 건립을 위해 협조해주시고, 공사기간 동안 불편을 참아주시는 주민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지역민을 위한 행정·복지·문화의 중심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달서구청〉



달성군장애인복지시설 비대면 역량 강화 교육

달성군은 지난 7~8일 양일간 달성군장애인복지관 주관으로 2021년 달성군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으로 진행됐으며, 코로나19 대응에 힘쓴 종사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 및 종사자간 상호교류 기회를 제공함으

로써 지역사회 복지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자 마련됐다.

또한 코로나19와 공존하는 시대에 사회복지사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고 색채를 통한 감정 치유와 연극을 통한 공감과 소통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달성군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 정계원 회장은 “비대면으로 교육을 진행하게 돼 아쉽지만, 이번 교육을 통해 종사자간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재충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박신영 기자

세천 생오리 세천점

내 몸을 지키는 생오리가 있다

힘든 몸을 달래줄 건강식이 생각날 때는 여러 보양식이 있기는 하지만 단연 오리고기라 할 수 있겠다. 게다가 멀리도 아니고 우리 주변 인근인 세천 마을 중심에 있는 세천 생오리 간판이 나의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주 듯이 나의 가슴에 와 닿는다.

세천 생오리 대표는 32년 전부터 이곳에 터를 잡아 반점으로 가게를 시작하셨다고 한다. 그때는 꽤 장사가 잘되어서 현재의 건물까지 소유하시게 되었는데 이 좁은 세천 바다에 여러 군데의 반점이 더 생기는 바람에 자신의 가게에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돼지고기 전문점으로 업종을 변경하셨고 그렇게 또 10여 년 정도 그 가게를 승승장구하며 유지하다가 최근에 오랫동안 자신의 영업을 찾아주시는 분들에게 보답하고픈 마음에 “어찌하면 사람들의 건강을 채워 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 끝에 생겨난 가게가 현재의 생오리고기 전문점이다.



여기는 주차공간이 넓으며, 실내에 어린 자녀들을 위한 놀이방이 따로 구비되어 있어 아이들과 함께 찾기도 좋다.

오리고기는 예로부터 불포한 지방산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어 여름철 건강 보양식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각광받고 있는데, 싱싱하고 건강한 오리를 하빈 소재 꼬꼬 축산농장으로부터 직송으로 배달 받는다. 그래서인지 오리고기의 맛은 모든 사람의 오감을 자극할 정도로 건강해지는 맛이라고 한다.

게다가 대표가 직접 만드신 특제양념 소스로 기본 반찬을 만들어 오리구이나 오리주물럭과 함께 곁들여 먹으면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를 정도라니 그 맛은 방문한 손님들이 혀를 내두를 정도라고 인정한다. 독특하게 감칠맛이 나는 이 소스의 제조 비법은 아쉽게도 조금이라도 알 수가 없었다.

처음에는 서재, 세천 정도의 장사였다가 점차 입소문이나 SNS를 타고 소문나고서는 대구인근은 물론 멀리 안동에서도 손님들이 대표가 만드는 특별한 요리를 맛보기 위해 일부러 시간을 내서 오시기도 한다고 한다.

대표는 지금 바람이 있다면 “다른 많은 소상공인이 그렇듯 코로나 여파로 우리 가게도 손님들의 발길이 잠시 주춤하지만 모든 소상공인이 바람이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를 극복하여 전 국민을 상대로 대표의 주 요리인 생오리 주물럭을 건강하게 요리하고 싶다. 코로나가 없는 세상에서



모든 소상공인의 얼굴에서 행복이 가득 차서 예전처럼 힘차게 영업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다.

오늘 저녁 생오리 구이와 주물럭에 가족들이 오순도순 모여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것을 어떨까? 난 오늘도 고기 먹으러 간다.

정일남 기자

☎ 세천 생오리 세천점

주소: 대구 달성군 다사읍 세천본3길 16

예약문의 : 053)585-9509, 010-4513-9509

푸짐한 한상 따뜻한 밥 한 끼 '성주 옛 고을' 감삼동

사람들은 늘 밥을 먹는다. 세상 어디를 가도 밥 식당이 우리 주변에서 맴돈다. 밥은 우리에게 일상생활하기 전의 힘이다. 푸짐한 양에 든든하게 먹어야 머리 쓰는 일도 편하고 활동적인 일을 힘 있게 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이다. 늘 푸짐한 양에 든든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식당이 있다. 그 이름은 '성주 옛 고을' 죽전역 2번 출구를 나서 5분 정도 거리의 위치가 되어있는 감삼동 한 식당이다.

성주 옛 고을은 2004년 성주에서 대구 용산동으로 오면서 10년 정도 운영하시다 2014년에 감삼동으로 옮기셨다고 한다. 옮기고 난 후에는 7~8년 정도 되셨다고 말씀하셨다. 식당의 안은 넓고 자리도 꽤 많았다. 밖의 테이블뿐만 아니라 단체 손님으로 방안에도 자리가 마련되어 있는데 50석에 3칸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하신다.

보통 식당 손님에는 단골손님이 꽤 많으시다고 한다. 식당 초반부터 단골로 오시던 손님분들은 식당이 오래됨에 따라 함께 같이 나이가 드신 분들이 많다고 하셨다. 최근에는 젊은 층 손님들을 생각해 식당 운영

계획을 자주 세우신다고 말씀하셨다. 성주 옛 고을에는 메뉴도 다양했다. 이 식당에서 대부분 손님들이 제일 많이 찾는 음식이 삼겹살, 양념 돼지갈비, 대패삼겹살 종류의 육류와 된장찌개, 육회비빔밥, 두루치기 등의 식사류였다. 돼지고기는 국내산 암돼지를 사용하고 소고기는 국내산 한우를 사용한다고 하신다. 식사류 중에서도 두루치기 1인분 가격을 점심특선으로 두루치기와 된장찌개, 밥을 제공한다고 한다. 음식을 주문할 때 모든 식당은 밑반찬이 기본으로 들어간다. 성주 옛 고을의 반찬은 식사 메뉴 못지않게 정말 다양하고 많았다. 보통 8가지 정도의 반찬을 드리는데 명이나물, 양념계장, 샐러드, 물김치, 백김치, 호박잎 등이 제공되고 계란프라이와 김 또한 무한 셀프 반찬으로 제공하고 있어 10가지 정도 된다고 한다. 고기와 함께 먹기 위한 쌈 채소도 종류도 다양하고 바구니 한가득 담아 드린다고 한다. 또한 같은 반찬 같은 음식만 하면 지겨울 수 있기 때문에 계절에 따라서 반찬도 바뀌기도 한다고 하셨다. 최근에는 가지 볶음, 파리, 멸치볶음, 박, 소시지,



고구마줄기 등을 만들기도 하셨다고 한다. 대부분 모든 음식을 토속적으로 만드신다고 말씀하셨다.

음식점, 식당하면 역시 식당 후기를 안 찾아볼 수가 없다. 식당 방문한 손님들의 후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고기의 빛깔도 좋고 음식의

맛도 좋은데 양이 아주 푸짐해서 기분 좋게 든든하게 먹었던 말을 많이 남기셨다. 밑반찬만으로도 밥 몇 공기는 금방이며 음식도 바닥이 보일 정도로 먹었다며 맛있었다는 칭찬이 일색이었다. 사장님은 성주 옛 고을의 큰 손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모든 음식들을 한가득 담아 푸짐하게 대접했다. 점심이나 저녁으로 또는 모임이나 외식으로 푸짐하고 든든한 한 끼를 성주 옛 고을에서 해보는 건 어떠한가. 서수민 기자



☞ 성주 옛 고을
주소: 대구 달서구 외룡로 156
(감삼동 171-4)
전화: 053-523-2070

ANIBOX

애니박스 디지털 182번

채널J 디지털 123번

CHANNEL

‘달서아트센터’로 불러주세요

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명칭 변경

달서구(구청장 이태훈)는 지난 13일 달서구 대표문화시설인 웃는얼굴아트센터의 이름을 지역브랜드를 잘 살리고 지역민이 공감하는 핵심키워드를 담은 ‘달서아트센터’로 변경해 새롭게 출발한다.

달서구의 아이덴티티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이름을 통해 지역문화예술시설로서의 인지도와 지역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다.

달서아트센터는 2004년 첨단문화회관으로 최초 개관한 이래 2014년 웃는얼굴아트센터로 명칭을 변경해 재개관해 17년여간 운영해 왔다. 그러나, 일반적인 형상을 바탕으로 한 명칭으로 인지도가 낮고, 문화예술시설로의 정체성 또한 잘 살리지 못한다는 지



달서아트센터 내부 모습

적과 함께 명칭 변경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올해 3월 명칭 변경의 필요 여부를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3,300여 명의 참여자의 79.9%가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고 답해 내부논의를 통해 명칭 변경을 추진했다. 지난 10월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

된 명칭 변경 심의위원회를 통해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최종명칭(안)을 ‘달서아트센터’로 선정했다. 최종 명칭(안)은 제284회 달서구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정식 명칭으로 심의·의결되어 12월 13일 시행된다. <자료제공:달서구청>



대한노인회 달서구지회 부설 노인대학 제18기 졸업식

대한노인회 달서구지회 부설 노인대학의 제18기 졸업식이 지난 9일 지회 2층에서 내빈과 졸업생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졸업식에는 방역지침에 따라 노인대학 회원과 조철제 학장을 비롯해 김해동 대한노인회 달서구지회장, 학기 중 강사가 참석해 졸업을 맞은 26명의 졸업생들을 축하하고 격려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노인대학 개강을 하지 못하고, 올해 9월부터 인원 제한을 둔 강좌로 개강해 어르신들이 많이 참석할 수는 없었다.

졸업식은 지난 3개월간 열심히 공부한 26분의 어르신들에게 졸업증서를 수여했다.

이번 제18기 노인대학은 늦게 개강한 탓에 건강반과 스마트폰 활용반 2개 반만 개설

됐지만 어르신들의 배움의 열정은 뜨거웠다.

조철제 학장은 졸업식사에서 노인대학 교가를 시작으로 존경하는 졸업생분들이 젊게, 건강하게,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시고 125세 까지 무병장수하시길 바라면서, 가정에 행복과 하시는 일에 소원 성취하시길 기원했다.

또, 내년에는 각종 교양과목

과 즐거운 노래교실 등 풍성한 강좌로 활기차고 웃음 가득한 노인대학을 함께 만들자는 기대의 인사를 했다.

김해동 대한노인회 달서구지회장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배움을 열정으로 학기를 마쳐주신 어르신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강좌를 함께한 강사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김준영 기자

달성군자원봉사센터,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 우수자원봉사센터 선정

달성군(군수 김문오)이 달성군자원봉사센터가 코로나19 예방접종지원 우수 자원봉사센터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는 감염병 극복을 위한 예방접종지원 자원봉사활동을 조직화하

고 운영한 우수자원봉사센터 40여 곳을 선정해 표창했다.

달성군자원봉사센터는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에 따른 인력문제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지난 4~10월까지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구성·

달서구 취업노크 대구서부고용센터

■ 관리·사무직

사업체명	모집직종	학력	임금
조양정밀(주) 053-583-8316	경리 사무원	무관	월 220만 원 이상
(주)대창코리아 053-353-6731	생산·품질 사무원 및 관리원 (기계·자동차·금속)	전문대졸 이상	연 3,000만 원 이상
(주)삼우농기 053-588-1700	자재·구매 사무원 (기계·자동차·금속)	전문대졸 이상	연 3,600~3,700만 원
(주)에스더블유스틸 053-588-1209	영업 기획·관리·지원 사무원	전문대졸 이상	연 2,900만 원 이상
(주)태광아이엔씨 053-593-2711	생산·품질 사무원 및 관리원 (기계·자동차·금속)	전문대졸 이상	연 4,000만 원 이상
(주)삼우정밀 053-581-2283	생산·품질 사무원	전문대졸 이상	연 2,700만 원 이상

■ 기술 기능직

사업체명	모집직종	학력	임금
JMT 053-586-7936	드릴링기 및 보링기 조작원	무관	월 230만 원 이상
삼택 053-585-5032	공작기계 조립·검사원	무관	연 2,400만 원 이상
대은테크 053-593-4600	머시닝센터(MCT) 조작원	무관	연 3,000~4,000만 원 (상여 100%)
(주)한영프론틱 053-582-0005	공업기계 설치·정비원	무관	월 230~250만 원
대경TC 053-593-3133	레이저 절단원	무관	월 240~250만 원
주식회사 화산정공 053-584-9205	금속절곡기 조작원 (번딩기 조작원)	무관	월 300만 원 이상
(주)이룸국 053-358-8589	도장원(도장기 조작원)	무관	시급 10,000원 이상

■ 단순 생산직

사업체명	모집직종	학력	임금
삼진상사 대구자본대리점 053-584-0025	기타 판매 단순 종사원	고졸 이상	월 220~240만 원
(주)협선도금 053-581-3126	제조 단순 종사원	무관	시급 9,000만 원 이상
(주)동신에스피 053-591-9191	인쇄, 복제, 기구 및 기타 제조 분야 단순 종사원	무관	월 220만 원 이상
(주)케이씨미디어 053-581-8950	제조 단순 종사원	무관	월 200만 원 이상
대경TC 053-593-3133	제조 단순 종사원	무관	시급 9,100원 이상
(주)바른식품 070-8638-4172	식품 분야 단순 종사원	무관	월 215만 원 이상

■ 영업(판매), 운전·배송직

사업체명	모집직종	학력	임금
(주)유성에프티 053-591-5788	화물차·특수차 운전원	무관	연 3,200만 원 이상
에스알오페이션 주식회사 053-581-0881	배송·납품 운전원 (납품영업 포함)	무관	연 2,800만 원 이상
지원상사 053-257-6787	배송·납품 운전원 (납품영업 포함)	무관	월 200만 원 이상
세이브(주) 053-581-8196	배송·납품 운전원 (납품영업 포함)	무관	월 250만 원 이상
해진상사(주)미래보일러 053-525-9000	배송·납품 운전원 (납품영업 포함)	무관	월 215만 원 이상 (상여 100%)

※ 문의: 대구서부고용센터 053)805-6508 www.work.go.kr/daegujobdbu

운영하는 등 코로나19 예방접종지원 자원봉사활동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달성군자원봉사센터장은

“단계적 일상회복에 발맞춰 내년에는 보다 활발한 자원봉사 활동으로 지역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박신영 기자



추현 호 대구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e-mail: ilmare16@naver.com

青問靑答 청년이 묻고 청년이 답하다.

선택에서 중요한 것은 맥락과 가치관

연말연시를 맞아 청년들의 표정이 제각각이다. 한차례 공채 시즌이 지났기 때문이다. 취업에 성공한 청년은 그 나름의 고민이 있었고 취업에 성공하지 못해 또다시 취업 준비 레이스를 진행해야 하는 청년들도 고민이 깊었다. 특히 최근 코로나 상황과 4차산업과 연계하여 기업들이 공채를 줄이거나 없애고 수시 채용과 경력 중심으로 취업을 전환하는 추세가 늘어나고 있다. 취업 성공에 대한 체감 난이도가 버겁게 느껴지는 이유기도 하다. 연말을 맞아 2021년 하반기 공채 시즌에 취업에 성공한 청년과 취업에 원하는 성과를 거두지 못한 청년들을 따로 만나 대답할 기회를 가졌다.

유통 대기업과 글로벌공사를 수주한 중공업 두 대기업에 동시 합격한 A

청년 A는 모 장학재단의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멘토-멘티의 관계로 처음 만났다. 멘토링 시간에 언제나 일찍 와서 질문을 정리하는 성실한 청년이었다. A의 질문은 여느 친구와는 다르게 상당히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었다. 그런 A가 최근 취업에 성공했다며 문자를 보내왔다. 이름만 들으면 요즘 청년들이 가장 선망할 만한 대기업이었다. 초봉 연봉도 지역기업을 웃도는 4,300~4,700여만 원 수준이었다. 축하한다는 문자에 A는 고민 상담을 요청해왔다. 취업에 성공한 것은 분명히 기쁜 일이지만 두 군데 합격통지를 받아놓고 갈팡질팡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지인들에게 여러 의견을 물어봐도 답이 명확하지 않았고 마침내 필자에게까지 고민 상담을 해온 것이다. 1년 동안 지켜본 A는 논리적이고 성실한 경영학과 학생이었다. 지병이 있으신 부모님의 노후에 대한 책임과 준비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했고 빠른 시간에 자본금을 모아 자신만의 사업과 투자를 하고 싶다고 했다. 목표도 명확했고 액션도 지속적이었다. A가 회사에 들어간 이유는 오로지 자본금 즉 씨드머니를 마련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 A는 그 기업이 어떤 기업이 되었든 5년 안에 퇴사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만약 그의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면 퇴사 즈음 그의 나이는 30대가 된다. A는 전체 평균 4.5점 만점 학점 중 4.3점을 취득했고 교내외 장학금으로 학교에 다니는 동안 2천만 원 이상의 지원을 받았다. 충분히 좋은 두 회사, A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3년째 공기업 취업을 준비 중인 B

오랜만에 B의 전화를 받은 것은 지난주였다. 비구직니트 청년들을 위해 한 복지센터에서 마련한 상담 자리에서 필자를 처음 만났다. 수화기 건



2019청년진로콘서트의 모습.가치관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첫번째.추현호

너로 들려온 목소리는 밝지 않았고 우울함이 묻어났다. B는 지방의 공기업에 취업하고자 해당 시험을 3년째 준비 중인 20대 후반 청년이었다. 수험기간이 길어지자 B는 의욕도 떨어졌고 많이 지쳐가고 있던 터였다. B가 취업하길 원하는 공기업은 명확히 정해져 있다. 하지만 경쟁률이 수십 대 1을 넘어선다. 올해도 결국 B는 목표한 공기업에 취업하지 못했다. 서류 심사를 통과했고 대면 면접까지 갔지만,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 B는 4년 차 공기업 준비를 해야 할지 아니면 이제 공기업 준비는 그만하고 취업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다. B는 또다시 지원을 해야 할까? 아니면 이제는 바로 일을 해볼 수 있는 또 다른 일 자리를 찾아 나서야 할까?

결정을 무시할 수 없는 맥락

상담 현장에서 청년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것이 있다. 청년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어려워하고 괴로워하면서도 그 상황속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과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자주 간과하곤 한다. 눈앞의 어려움에 매몰되면 그 어려움의 벽에 작은 구멍을 낼 수 있는 작지만 큰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도구들이 자신 주변에 혹은 이미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간과한다. B의 경우 가장 중요한 맥락은 1년이고 2년이고 더 준비해도 괜찮은 경제적, 심리적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지의 여부이다. 만약 합격이 유예되더라도 그 시간을 버텨내고 포기하지 않고 지속할 수 있는 경제적, 심리적 지원 네트워크가 마련되어 있다면 재도전은 환영받을 수 있는 선택지가 된다. 하지만 경제적인 상황이 도저히 받쳐주지 않거나 심리적으로 깊은 좌절과 우울감에 빠져있는 상태라면 시험에 대한 재도전은 좋은 선택지가 아닐 수가 있다. 현장에서 정말 많은 공시생을 만났다. 수험기간이 길어지면서 수험생은 공시 낭인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고3 때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있지만, 대학입학보다 어쩌면 더 힘든 취업이라는 난관 앞에 하염없이 절망과 우울의 늪에 빠지게 된다. 매직넘버는 없다. 다음 해에 합격할 수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결국

도전에도 비용이 든다. 그 비용이 마련되어있느냐가 도전에 동반되는 실패에 대한 방어막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상담의 시작은 늘 맥락의 파악이다. B는 자신의 생활비를 자신이 벌어서 충당해야 했고 아픈 할머니님이 계셔서 부양해야 하는 상황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상태였다. B는 우선 지금 취업 가능한 회사를 알아보기로 했다.

선택에서 중요한 것은 가치관과 목표

나쁜 상황에서 선택을 내릴 때도 고민이 되지만 좋은 상황에서 선택을 내릴 때도 고민이 된다. 주어진 선택지 중에 최선의 선택을 내리지 못했을 때 잃게 되는 효용이 바로 손실이 되기 때문이다. A에게는 두 회사의 장단점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자신의 가치관의 우선순위를 정렬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주었다. 지금, 이 순간 선택을 내려야 하는 바로 이때 그 선택의 판단 기준은 바로 자신의 우선순위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A의 목표는 최단 시간에 근로소득을 통한 종잣돈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후에 그 종잣돈을 미니상가, 주식 등의 재테크 포트폴리오로 현명하게 굴려본인이 원하는 재정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전쟁터에서 싸우는 것을 우리는 전략이라고 하고 그 전쟁터에서 일어나는 작은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세우는 것을 전술이라고 한다. 수많은 전술들이 모여 큰 대전의 전략이 된다. 청년들이 취업하고 취업 이후의 커리어를 진척, 개발해나가는 일련의 과정이 전술이라면 그 모든 방향을 결정짓는 것은 전략에 가깝다. 그리고 이 전략은 가치관의 우선순위 위에 마련될 때 선택에 대한 미련과 후회가 최소화될 수 있다.

12월 청년에게 추천하고 싶은 청년정보꿀팁

청년워크넷 사이트에 접속하면 지금 바로 청년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기업들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대기업, 중견기업, 공기업도 좋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성장 기회가 열려있는 지역의 강소기업들이 있다. 해당 사이트를 통해 관련 정보를 확인하기를 권한다.

<https://www.work.go.kr/jobyoung/main.do>

동서 카센터

오늘 당신의 발은 건강하십니까??

현대인들의 필수품이자, 우리들의 발이 되어주고 있는 자동차, 우린 그 자동차라는 발에 의존해서 세상 곳곳을 누비고 있다. 작은 골목길에서부터 아주 큰 대로까지, 우리들의 목적지를 향해서라면 어느 길이든 기꺼이 우리들과 함께하고 있는 자동차, 그 자동차가 아프기 시작하면 과연 우린 어떻게 해야 할까??

사람도 다치고 아프면 병원을 찾게 되듯이 나의 발인 자동차도 아프기 시작하면 병원을 찾게 된다. 그곳이 바로 카센터나 정비 공장이다. 물론 통증과 상해의 정도에 따라 크고 작은 병원을 가듯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카센터나 정비 공장으로 향하게 된다. 자주 가는 동네병원에 주치의가 있듯이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자동차의 주치의 만나보았으면 한다.

이곳 대표는 다사 강창, 세천 지역에서 친절하기로 소문난 ‘동서 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본적인 자동차 수리를 전문으로 함은 물론, 박식한 자동차에 대한 지식, 오랜 경험과 노하우로 운전 시 차량의 어느 곳이 문제인지, 애매한 내부 기관 문제들까지도 진단해 주는 등 항상 운전자의 안전을 생각하고, 또 운전자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카센터로 밝은 미소와 친절로 고객을 맞이한다.

카센터 특성상 일반적인 정비는 다 가능하며, 각종 오일 종류, 타이어 교체, 라이닝 교체, 오토 미션, 배터리 교체, 엔진 점검 및 트러블 점검, 부동액, 전자 쇼바, 언더 코딩 등 차량 문제에 따라 이곳저곳을 다녀야 하는 불편함을 없애고 자동차



문제 관련해서 점검 및 정비가 한 번에 끝나는 곳으로도 유명하다. 혹시나 점검 과정에서 차량에 중차대한 문제 발생 시 ‘동서 카센터’는 프로미카 월드와 협력이 되어 있어서 좀 더 많은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다.

게다가 동서 카센터 대표는 친절함을 생명으로 생활하시며, 차량 문제로 답답해하는 운전자들에게 알기 쉬운 설명 및 더 필요한 것이 있는지 항상 먼저 물어보시고 운전자들이 미처 확인하지 못한 공기압 체크, 매트 청소 등 기본적인 서비스는 찾아서 해주시는 센스가 있다.

사무실 내부에 들어가면 ‘一路邁進(일로매진)’이라는 현수막이 항상 걸려있는데 이는 ‘한길로 곧장 거침없이 나아감’이라는 뜻으로 방문하는 운전자를 대하는 대표의 마음이라고 한다. 누구나 정말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을 때

우리가 해 온 대로 믿음을 가지고 한길로 나아가야 한다. 출근한 아침마다 현수막을 보고 마음에 새긴다고 하신다. 이 마음이 운전자의 발걸음을 오게 만드는 오늘의 ‘동서 카센터’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 본다.

동서 카센터 위치는 강창동서아파트에서 세천교로 가기 전 좌측 30m 부근 육교 가기 전에 위치한 곳으로 누구나 쉽게 찾아가기 좋은 곳이며, 다사 쪽에 사시는 분들이나 혹시 다른 지역이라도 차량 점검이 필요하신 분들은 ‘동서 카센터’에서 한번 점검받으시면 누구라도 한 번만 방문하는 일은 없을 듯하니 내 발이 아플 때, 아니면 아프기 전 점검이 필요할 때라도 오늘 한번 가보자.

정재훈 기자

☞ 동서 카센터: 대구 달성군 왕선로55
☎ 053)588-5429



2021 교통문화증진대회 및 후원물품 전달식

한국교통장애인협회 달서구지회는 지난 9일 성서장애인재활복지센터 3층에서 교통문화증진대회 및 후원물품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교통장애인협회 달서지회 회원과 자원봉

사자 및 후원자를 비롯해 이태훈 달서구청장과 윤권근 달서구의회의장, 권영혁 한국교통장애인협회 대구시협회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지난 1년 간 선진교통문화 정착과 지역봉사에 이

바지한 회원들에 대한 표창과 감사패 수여가 있었으며, 지역 각계각층의 사랑의 후원품 전달이 있었다.

이번 후원된 물품들은 행사가 끝난 뒤에 복지센터 1층에서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

아 회원들에게 전달됐다.

한국교통장애인협회 달서구지회 박병근 지회장은 “교통사고 없는 건강한 사회 만들기에 함께 해준 회원들에게 감사를 전하면서 2022년에도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동승 기자

신규창업음식업소 개업했어요

제공: (사)한국외식업중앙회 대구광역시지회 달서구지부



일신 도가니 설렁탕

대구시 달서구 앞산순화로 291(송현동)
☎ 010-8748-1624



신통치킨

대구시 달서구 달구벌대로304길 39(감삼동)
☎ 053-585-0056



성주고향식당

대구시 달서구 달구벌대로309길 29(죽전동)
☎ 053-566-1250

한국자유총연맹 달성군지회 '2021년 정기총회'

한국자유총연맹 달성군지회가 지난 7일(화) 농협달성유통센터 2층 대강당에서 2021년 사업실적 평가대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내빈 소개, 우수회원 시상과 감사패전달, 그리고 축사로 이어진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됐다.

곽진섭 지회장은 인사말에

서 “하나 된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발전시키는데 앞장서주신 회원들께 존경의 박수를 보낸다”며 “초심을 잃지 않고 늘 성실한 봉사자로서 지역사회 발전과 자유 민주 수호 체제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문오 달성군수도 기념사에서 “국민의 안보의식은 물론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발전에 힘써온 회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에 앞장서 주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한편 자유총연맹 달성군지회는 평소 6·25 참전용사 초청 효도잔치, 전쟁당시 음식 재현 시식회, 안보교육 및 법

질서 지키기 캠페인 등을 통해 시민의식 향상과 안보의식 확립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오고 있다. 전재경 기자

메탈링

지역 철강산업의 최전방을 사수한다!

달서구 대천동에 위치한 ‘메탈링’은 철제 파이프를 절단, 가공하는 향토업체로 운영을 시작한 지 1년 정도 된 신생업체입니다.

주로 자동차, 교구, 캐노피 텐트, 파라솔 등에 들어가는 파이프형 부품을 취급하고 있으나 주문에 따라서는 더욱 다양한 제품에 맞는 부품들도 맡아서 작업합니다.

업체를 운영하는 박준현 대표님께 일반적인 기계 대신 제조업 업체를 생각하게 된 계기 같은 게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사실 박 대표님은 관련 업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하면서 경험과 실력을 쌓은 후 업체 운영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기존의 일을 그만두고 차기 사업을 구상했을 때는 많은 선택지가 있었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 가장 손에 익고 잘 하는 일을 하는 것이 훨씬 시행착오가 적을 것이라는 생각이 확신으로 바뀌어 그대로 진행했다고 합니다.

상호명인 메탈링은 파이프의 소재가 금속이며 절단면이 보통 동그란 형태를 취하는 것에 착안하여 고안했다고 합니다. 단순하면서도 센스가 돋보이는 작명인 것 같다고 스스로도 만족하신다고 합니다.

처음 업체 운영을 시작할 때 염두에 두었던 점이나 힘들었던 점을 물으니 그에 앞서서 제조업의 생태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일반적으로 물건을 받아와서 판매를 하거나 재료를 사와서 만드는 것과 달리, 철강제조업은 그 물품을 필요로 하는 기업체들의 수주를 먼저 따라 하기 때문에 영업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일을 하고 싶어도 물품 제작 요청이 없으면 불가능하니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 몇 달은 직원 모두가 발품을 팔아서 좋은 조건의 수주를 따내는데 집중했다고 합니다.

물론 계약이라는 게 따내긴 어렵지만 한번 거래를 트면 정기적인 물량이 생겨서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답니다.

현재는 비록 작은 업체의 형태로 운영 중이지만 그만큼 유지 비용이 적게 나가고, 대표도 현장 일을 마다하지 않을 만큼 열정 있게 일을 하다 보니 타 업체에 비해 경쟁력 있는 가격 책정이 가능하여 운영실적은 서서히 안정권으로 진입하는 중이라 합니다.

앞으로 바라는 점은 경쟁력 있는 아이템 확보로 좋은 실적을 올리고, 아이템 다각화를 통해 더



욱 견실한 운영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

또한 실물경기가 어렵게 느껴지는 건 모두 같을 것이며 그래서 그런지 동종업계끼리 경쟁이 너무 치열한데 상생하여 발전해나갔으면 하는 소망을 말씀하십니다. 김희록 기자

신규창업음식업소 개업했어요

제공: (사)한국외식업중앙회 대구광역시지회 달서구지부



신반무침회

대구시 달서구 신당동 1763-20
☎ 053-585-6660



삼거리 시장국수&냉면

대구시 달서구 상화북로 86(상인동)
☎ 010-8387-5650



룰루막창 진천점

대구시 달서구 진천로9길 9(진천동)
☎ 053-202-5273

국밥이 땡기는 날은 ‘명가 국밥’으로



월곡 네거리에서 월광수변공원 방향 도롯가에 위치한 ‘명가 돼지국밥’ 전문점을 소개하려 한다. 자동 출입문을 들어서면 아주머니 사장님께서 웃는 얼굴로 맞아주시고 아저씨 사장님께서 주방에서 열심히 요리하고 계시는 모습이 푸근한 인심이 느껴진다.

간판만 보아도 알 수 있듯이 국밥으로 최고가 되겠다는 굳은 신념으로 ‘명가(名價)’ 돼지국밥 전문점이라는 상호를 달고 2010년 오픈하여 10여 년째 영업 중이다 하겠다.

식사 메뉴로는 돼지·내장·섞어·순대 국밥과 떡배기 제육이 있으며, 안주 메뉴로는 수육·순대 전골·석쇠 구이·철판 제육볶음·술국 등이 있다. 식사 메뉴로는 돼지국밥이 주력이며 안주로는 전골류를 추천한다고 하신다.

향긋한 부추 향이 은은하게 퍼지면서 누린내 없이 깔끔한 국물은 이 집만의 맛의 비결 중의 비결!

국밥에는 소량이지만 소면도 나오는데 국물에 소면을 잠깐 담갔다가 건져 먹고 잘 삶긴 돼지고기 수육과 마늘을 쌈장에 살짝 찍어 고기와 밥을 어느 정도 먹은 후 반쯤 남은 밥을 국물에 말아서 마무리하는 게 개인적으로 더 맛있었던 것 같다. 따끈한 국물을 마실 때는 소주 한 잔이 절로 생각나게 하는 국밥이다. 점심으로 한 끼 해결하면 온종일 배가 든든하다.

소면은 필요하면 추가로 무료 리필해 주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더 먹고 싶으면 주저하지 않아도 된다.

10년 넘게 장사하면서 2011년 구제역을 비롯하여 이번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겪고는 있지만 감사하게도 한자리에서 오래 하다 보니 단골들이 꾸준히 찾아주시고 포장 손님도 많이 늘면서 나름 괜찮게 운영하고 계신다고 한다.

어린 시절 부모님과 함께 식사하러 왔던 꼬마 손님들이 최근에는 대학생이 되어 친구들과 함께 찾아오며 술도 한 잔씩 하고 간다며 사장님 두 내외분 모두 미소를 지으시며 흐뭇해하셨다. 누군가에게는 또 하나의 ‘추억 맛집’인 셈이다.

“우리는 요즘도 일주일에 서너 번씩은 먹어 예.”

내가 먹고 가족이 먹는 음식이라는 생각으로 항상 청결을 유지하고 신선한 재료로 정성껏 맛있게 조리하신다고 그거 하나만큼은 자부하셨다. 한 번이라도 찾아주셨던 고객분들께 항상 고맙



식사류	안주류
돼지국밥 — 8,000	수육 — 27,000
내장국밥 — 8,000	수육 — 20,000
섞어국밥 — 8,000	순대전골 — 17,000
순대국밥 — 9,000	순대전골 — 25,000
떡배기제육 — 9,000	곱창전골 — 25,000
공기밥 — 1,000	석쇠구이 — 10,000
소주 4,000 맥걸리 4,000	철판제육볶음 — 20,000
맥주 4,000 음분수 2,000	술국 — 12,000

다고 하시며 앞으로도 친절과 정성을 듬뿍 담은 맛으로 고객분을 맞이하겠다고 하겠다.

국밥이 땡길 때, 해장술이 생각날 때, 여기 ‘명가 돼지국밥’ 전문점을 추천해본다. 이진하 기자

☎ 달서구 월곡로 103 (달서구 도원동 595)
☎ 053-631-1891



사문진주막촌 드론사진

달성군 주요 관광지에 LED 별빛정원 조성

달성군(군수 김문오)이 송해공원 등 주요 관광지에 LED 등 50만개가 빛나는 별빛정원을 조성해 점등한다.

달성군은 주요 관광지인 송해공원, 사문진주막촌, 그리고 테크노폴리스 중앙공원에 LED등을 설치하고 내년 3월 중순까지 점등에 들어갔다.

송해공원에는 국화 축제에 사용한 모형을 재활용한 LED 조명으로 신비로운 분위기를 연출했으며, 테크노폴리스 중앙공원은 무궁화동산 일원을 은하수 조명으로 꾸며 연말 분위기를 물씬 느끼게 하고 있다.

규모가 가장 큰 사문진나루

터에는 장미화단과 뿔단배를 활용해 바다 분위기를 연출했다.

특히, 25m가 넘는 양버즘나무 3그루에 설치한 은하수 조명은 수목에 설치한 조명 중 국내 최대 높이로 웅장한 경관을 연출하고 있다.

〈자료제공:달성군청〉

모범음식업소 추천해요

제공: (사)한국외식업중앙회 대구광역시지회 달서구지부



제주신물회

대구시 달서구 호림동12-5
☎ 053-582-9705



황태명가

대구시 달서구 상화로 137 (진천동)
☎ 053-636-2605



참좋은 청국장 순두부 전문점

대구시 달서구 상인서로 18-24 (상인동)
☎ 053-634-0889

기쁨 Plus
SBS Plus



다 함께 fun!
SBS funE



함께 만드는 스포츠 세상
SBS Sports



골프의 모든 순간
SBS Golf

의견있는 경제채널
SBS CNBC



Music & More
SBS MTV

Kids First
nickelodeon



 **SBS Medianet**

아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재미와 감동**
SBS 미디어넷과 함께 만드는 기쁨은 언제나 'On-Air'입니다.

 **SBS Plus**

 **SBS Sports**

 **SBS Golf**

 **SBS funE**

 **SBS CNBC**

 **SBS MTV**

 **nickelodeon**



Ch.1 프로그램 소개

Channel for you

행복한 달서구 달성군 ▶ 정겨운 우리동네



지역의 다양한 행사나 동아리, 동호회 등의 행사를 제작, 방영하는 프로그램

버스킹 & 시간여행



버스킹으로 떠나는 시간여행 음악과 함께 추억을 선사하는 프로그램

God 일우의 TOEIC 'The LUV'



YBM동성로 대표강사 전일우 선생님의 토린이(토익+어린이)들을 위한 방송과 인터넷 강의를 위해서도 다시한번 토익을 즐겨보자.

지역채널 뉴스 ▶ ch1 푸른방송 NEWS



지역의 생생한 소식을 신속히 전해드립니다.

▶ 방송시간

매일 ⇨ 00:00 / 03:00 / 06:00 / 08:00 / 12:00 / 16:00 / 19:00

종합편성채널 (종편)

▶ TV조선 토요일 밤 9:10



대한민국 최강! 샌 캐릭터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진보한 시사는 박수받지만 진부한 시사는 외면 받는다. 서로코드가 맞지않는 강적들이 뿔뿔히 뿔었다. 고품격 저품격 사이의 아슬아슬한 시사쇼!

▶ JTBC 토요일 밤 9:00



인생을 살다보면 마주치게 되는 사소하지만 궁금해 견딜 수 없는 질문들. 그럴 땐!!! '질문하라! 아는 형님이 답할 것이다.' 나이도, 출신도, 성격도, 외모도 전혀 다르지만 그들만의 방식으로 추측하고! 실험하고! 전해주는 '아는형님'만의 인생 해답!

케이블 채널



▶ tvN 매주(금, 토) 밤 10시 40분

배드 앤 크레이지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삼각형이 있다고 믿었다. 나쁜 짓을 할 때마다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꼭꼭 심장을 아프게 찌르는 삼각형. 근데 문제는 이 삼각형의 모서리가, 점점 닳는다는 거. 모서리가 닳고 닳아서 나중엔 나쁜 짓을 저질러도 아무렇지도 않아진다. 그 삼각형 이름이, 양심이다.

그래서, 지금 내 양심은 어떤 모양이냐?
"거 참... 물어 뭐하나. 입만 아프게... 둥글둥글 하다못해 팽이처럼 돈 지 오래다. 이 험한 세상, 어지간한 불의(不意)엔 눈감을 줄도 알아야아른이지. 피곤하게 남일에 끼어들지 말고 오지랖은 넣어둬시다!"하는 그 순간—

'퍼어어어어— 펍 펍!'

내 죽병이 날아간다. 생판 처음 본 어떤 미친놈이 정신 번쩍 나는 주먹을날린다!!

그렇게 시작된, 나쁜놈과 미친놈의 거칠고 화끈한 빅매치! BAD AND CRAZY

푸른방송 최신 영화관 (VOD)

▶ 블랙 위도우

어벤져스의 운명을 바꾼 블랙 위도우, 그녀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된다!

어벤져스의 히어로 블랙 위도우, '나타샤 로마노프' (스칼렛 요한슨)는 자신의 과거와 연결된 레드룸의 거대한 음모와 실체를 깨닫게 된다.

상대의 능력을 복제하는 빌런 '태스크마스터'와 새로운 위도우들의 위협에 맞서 목숨을 건 반격을 시작하는 '나타샤'는 스파이로 활약했던 자신의 과거 뿐 아니라, 어벤져스가 되기 전 함께했던 동료들을 마주해야만 하는데...



▶ 루카

이탈리아 리비에라의 아름다운 해변 마을, 바다 밖 세상이 궁금하지만, 두렵기도 한 호기심 많은 소년 '루카'

자칭 인간세상 전문가 '알베르토'와 함께 모험을 감행하지만, 물만 닿으면 바다 괴물로 변신하는 비밀 때문에 아슬아슬하기만 하다.

새로운 친구 '줄리아'와 함께 젤라또와 파스타를 싹껏 먹고 스쿠터 여행을 꿈꾸는 여름은 그저 즐겁기만 한데...



고령군 스타기업 3개 업체 선정

(주)가온케스텍, 에스몰, (주)범양포장

고령군(군수 곽용환)은 지역경제의 리더 역할을 할 미래성장 유망 중소기업 3개 업체를 스타기업으로 선정하고, 지난 13일(월) '2021년 고령군 스타기업' 인증서 수여식을 가졌다.

이번에 선정된 스타기업은 다산면 고령1일반산업단지에서 1개업체 [(주)가온케스텍], 성산면 2개업체[에스몰, (주)범양포장] 모두 3개업체로, 기술 혁신적이고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미래성장 잠재력이 있는 유망 중소기업체로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연간 매출액 30억 이상, 매출액 상승률, 기술개발 실적, 신기술 및 첨단기술 보유, 지역사회 공헌도 등을 종합 평가해 선정됐다.

당초 인증서 수여식과 함께 선정업체 현장에서 시행 예정이었던 스타기업 현판식 개점식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취소됐다.

고령군은 스타기업에 대해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추천액 지원 확대(최대 5억 원) 및 각종 중소기업 지원사업 우선 추천, 기업 수요에 맞춘 전략적 지원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곽용환 고령군수는 “작년과 올해 코로나의 영향 등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지역 경제 발전

에 힘써 주신 각 선정업체 대표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더욱 매진해 고령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하였고, 더불어 고령군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제공:고령군청〉

고령군 문화재 보존관리 유공 단체 선정

문화유산 관리역량 우수 문화재청장 표창

고령군(군수 곽용환)은 문화재청이 주관하는 ‘2021년 문화재 보존관리 유공 단체’로 선정, 문화재청장 표창을 받는다.

문화재 보존관리 유공 표창은 문화유산 보존·관리·활용 분야에서 공적이 큰 지방자치단체 부서 및 공무원 포상을 통해 사기진작과 업무역량 강화에 대한 동기 부여를

하고자 만든 포상이다.

고령군은 문화재청에서 실시한 지자체 문화유산 관리역량 평가에서 정성진단 결과 고령군의 문화유산 관리역량을 매우 우수하게 진단했다.

2019년 문화재 전담 조직인 문화유산과를 조직했으며, 문화재 정보검색프로그램 및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문화재 행정의 효율성 제고, 신속한 민

원응대 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하고 있고, 재난유형별 방재매뉴얼 구축, 군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해 24시간 모니터링 되는 재난방지시스템 구축, 지난 10여년간 14건의 문화재 지정 및 14건의 향토문화유산 지정, 현재 10여건의 문화재 지정 추진 등 매우 적극적인 문화재 행정을 하고 있고 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군 자체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과 문화유산의 특성을 고려한 문화재 활용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확대 추진 하는 등 문화재 행정 운영 전반에 대한 역량을 우수하게 진단해 정성진단평가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곽용환 고령군수는 “앞으로 선조들의 삶의 지혜가 담겨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을 지속적으로 보존 관리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자료제공:고령군청〉



고령군 귀농인연합회 사랑의 재능나눔 봉사활동

고령군 귀농인연합회(회장 박종진, 성산지회장 박춘자)는 지난 11일(토) 주거환경이 열악한 성산면 저소득 독거노인 2가구에 대한 봉사활동을 펼쳤다.

고령군귀농인연합회는 고령군에 귀농한 사람들의 모임으로 취약계층 주거개선사업, 사랑의 김장 나누기 등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이날 수혜대상인 성산면 기족리의 2가구는 회원들의 재능나눔으로 싱크대 교체, 도배 및 장판교체, LED등 설치 작업 등을 했다. 박종진 회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재능나눔 활동을 통해 인정과 훈훈한 정이 넘치는 고령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고령군청〉

고령군, 도시가스 공급확대 적극 추진

타 연료비 대비 30~50% 절감

고령군(군수 곽용환)에서는 올해 사업비 12억 원(도비 1.4, 군비 7, 대성에너지 3.6)으로 군청 앞 상가구간, 대가야시장 내 주택구간 등 15개 구간에 도시가스 공급관 매설을 완료하고 현재까지 공동주택, 단독주택 등 605세대에 도시가스를 신규 공급했다고 밝혔다.

도시가스(천연가스)는 공기보다 가벼워 누출되더라도 대기 중에 쉽게 확산되므로 화재 등의 사고 위험성이 매우 적으며, 배관을 통해 가스기까지 공급되기 때문에 별도의 수송수단이나 연료 저장시



설이 필요 없고, 타 연료에 비해 연소성 및 열효율이 높아 에너지절약에 기여하는 경제적인 연료로 현재까지 5,806세대[대가야읍 3,090세대(대가야읍 세대대비 62%), 다산면 2,716세대(다산면 세대대

비 67%)]에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으며 연료비 절감(타 연료 대비 30~50% 절감)은 물론 정주여건 개선으로 타지역 이탈을 방지하는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자료제공:고령군청〉

국립공원 가야산생태탐방원, 친환경 추천 여행지로 선정

지속 가능한 자연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한 친환경 프로그램 운영

성주군은 한국관광공사와 전국관광기관협의회가 공동으로 추진한 친환경 추천 여행지에 국립공원 가야산생태탐방원이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친환경 추천 여행지는 전국 총 31곳이며, 선정 여행지들은 여행지 성격에 따라 ▲탄소중립 실천 여행지 12곳 ▲친환경 가치 확산 여행지 11곳 ▲친환경 생태탐사 여행지 8곳 등 3개 유형으로 분류했다.

선정은 RTO 및 지자체 추천과 관광·환경·생태 분야 전문가 자문을 통해 진행됐다. 여행지로서의 매력도, 친환경 여행 지속가능성, 친환경 여행 가치 확산 등을 평가 기준으로 했으며, 전국 지역별 분포도 고려해 모든 국민들이 쉽게 방문할 수 있도록 했다.

친환경 가치 확산 여행지로 선정된 가야산생태탐방원은 천혜의 자연 속에 파묻혀 도시에서 벗어나 때 묻지 않은 가야산의 자연 속에서 소중한 사람과 함께 하는 여유와 휴식의 공간인 체험·체류형 거점으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관광객은 꾸준히 늘고 있다.

연중 사전 예약제로 운영하여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가능한 자연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방문자를 제한하고 있으며 그린뉴딜정책에 맞춰 지역연계 탄소중립 환경 교육프로그램과 일회용품 사용 자제를 위한 에코컵 만들기 체험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친환경 저지대 숲체험 인프라를 조성하여 탐방원의 자연과 체험인프라를 연계한



가야산생태탐방원 체험

특화프로그램(별·천·지컨셉)인 에코티어링 및 힐링산책, 디지털 디톡스 캠프, 황토길 걷기, 머물며 느끼는 가야산 치유프로그램 등 친환경 체험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기존 숙박시설과 분리되어 독립적·친자연적·친환경적 체류할 수 있는 랫지(7동), 캐

빈(10동)과 어드벤처시설이 내년 상반기에 완공 예정이다.

또한, 가야산생태탐방원은 우리 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지역관광활성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유니크메뉴(특별한 회의장소) 최우수상을 수상한 곳이기도 하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탄소중립 실현과 기후변화 대응으로 관광분야에도 친환경 여행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성박숲 등 우수한 생태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친환경 여행 확산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성주군청〉

성주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마킹이2기

‘너도 함께 마킹해’ 청소년집단프로그램 운영

성주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난 4일(토) 오전 9시 30분~오후 5시까지 관내 중학생 1~3학년 대상으로 마킹이2기 ‘너도 함께 마킹해’ 집단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너도 함께 마킹해 집단프로그램은 ‘내 마음을 두드려 보아요!’, 스트레스 풀 사람 여기 모여라!, 친구와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은?, 깨끗한 성주 우리 함께 환경을 지켜나가요’라는 주제로 자신을 알아가고 또래 친구들과 교제를 통해 대인관계증진과 더불어 플로

킹(‘이사를 줍는다’ 뜻인 스웨덴어 ‘plocka upp(pick up)’과 조깅(jogging)을 합친 조어, 걸으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 봉사활동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했다.

이 날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은 “친구 따라 참여하게 되었는데 나에 대해서 다시 알게 되고 잘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좋았다. 처음 보는 친구들과 처음에는 어색했지

만 친해질 수 있어서 좋았다. 가끔 걷다보면 그냥 보고 지나쳤던 쓰레기들을 마음먹고 주으니 기분이 좋아졌다. 다음에도 이런 시간이 있다면 시간을 내서라도 다시 해보고

싶다”고 밝혔다.

이번 마킹이 2기 너도 함께 마킹해 집단프로그램은 올 9월 25일에 진행한 마킹이 1기를 시작으로 다양한 연령의 성주군 청소년 대상으로 청소년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성주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054-931-1398)는 성주군에 거주하고 있는 만 9~24세의 청소년과 그 가족이라면 청소년 전화 1388, 채팅상담(카카오톡 채널)과 센터 방문(동절기-매주 수요일 오후 8시까지/ 하절기-매주 수요일 오후 9시까지 야간상담 운영)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자료제공:성주군청〉

2021 의약품관리사업 평가 최우수 수상

성주군은 경북도가 주관한 ‘2021년 의약품관리사업’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경북도는 23개 시·군(25개 보건소)를 대상으로 의약품 안전관리 및 유통질서 등 여러분야에 대해 평가해 우수 시·군을 선정, 시상하고 있다.

성주군보건소는 2021년 ‘안전한 의약! 신뢰기반 의료체계 구축’이라는 목표 아래 의약품소 지도점검 및 온라인 등 광고·표시기제 점검부터 약물 오남용 예방 및 폐의약품 회수 홍보, 코로나19 대응 약국 방역관리를 실시하면서 안전한 의약품 판매질서 확립 및 지역주민 건강보호를 위해 힘써왔다. 〈자료제공:성주군청〉

강병덕 농촌지도자성주군연합회 부회장

대한민국 농업대상 ‘최우수 농업인상’ 수상

성주군은 강병덕 한국농촌지도자성주군연합회 부회장이 지난 8일(수) 농민회관(수원)에서 개최된 ‘한국농촌지도자 제74주년 기념식 및 2021 대한민국 농업대상’ 시상식에서 ‘최우수 농업인상’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고 밝혔다.



2021년 한국농촌지도자 제74주년 기념

대한민국 농업대상은 (사)한국농촌

지도자 중앙연합회와 (주)농업인신문이 공동으로 제정한 상으로 농업분야 제도개선, 농업·농촌 정책개발, 교육, 기술보급, 신기술 개발 등 농업인의 권익보호와 농가소득 증대에 탁월한 업적을 남긴 분을 추천받아 시상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수상하게 된 강병덕 농촌지도자회 부회장은 그간 향산화게르마늄 연합회 회장, 농촌지도자성주읍회 부회장, 농업경영인성주군연합회장 등을 역임하는 등 농촌지도자회와 농업경영인회의 조직기반 조성 및 농촌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

강병덕 수상자는 “전국의 뛰어난 농업인 지도자들 중 최우수 농업인상을 수상하게 되어 모든 분들께 감사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성주군 농촌지도자회의 활동을 바탕으로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자료제공:성주군청〉



푸른방송이 28년의 세월이 담긴, 장인을 찾습니다!

- | 접수기간 | ~ 충원 시까지
- | 지원요건 | 달서구·달성군에서 28년 이상 한 가지 업종에 종사하신 분
※우리동네 카센터사장님, 집앞 미용실원장님, 단골 방앗간사장님 등 업종무관
- | 지원방법 | 연락처를 포함하여 간단한 소개를 이메일 gcsad@gcs.co.kr 로 보내주세요.
- | 활동내용 | 2022년 한 해 동안 푸른방송의 광고모델로 활동
※포스터촬영, 영상제작 등 자세한 내용은 추후 협의, 업무(영업)에 차질 없이 진행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 | 활동혜택 | 소정의 모델료 지급
- | 최종발표 | 개별통보

지역 사회 파트너

‘나’ 보다 ‘우리’가 강하다. **선로 도우며 힘들수록 함께해요!**

음식관련

장기 · 화원



곱뚝 능이버섯백숙

“바리새주의 제왕~일품능이버섯”



- 능이버섯오리백숙 ₩55,000
- 능이버섯달걀백숙 ₩50,000
- 능이버섯우육 ₩50,000
- 해신탕 ₩110,000
- 능이삼계탕 ₩12,000

T.635-3434

달성군 화월읍 천내리 235
화월삼거리 먹자터운 내

기타(타구)지역

커피와 두더지로부터
진짜 커피를 만나다

두더지 커피를 맛있게 즐기기 위해
카페 루아르 발공심점

대구시 파계로 596 053.981.1359

리빙

도배 · 장판 시공전문

안광인테리어
010-3099-1684
달서구 본동 970

기타

Q 24시
타이, 아로마 마사지
T.(053)636-5238
달서구 상인서로 20 (4층)
(구, 상인나이트 건너편)

**롯데아울렛
이시아폴리스점**
945-2302
대구시 동구 봉무동 1545

중고물품 판매합니다.
전집(전래, 명작 등), 인형, 장난감
다수 보유. 가격조정 / 직접방문필!
문의: 010-3424-8523

청소년과 부모님을 위한
재미있고 신나는 #진로코칭북

**두근두근,
꿈과 마주하기**

상담코칭센터 인투커리어 070-4306-1201

인터넷 쇼핑몰 “레드밤”

저렴한 가격, 정직한 마음으로
고객과 함께 하겠습니다.

070-8911-7711

달성군 화원읍 인흥길 63 1층

MODERN
DESIGN &
COZY
COMFORT

스타일리쉬한 민테리어의 약속

공간과 사람들

건축/인테리어전문

010.2902.3097



산골장어 · 아나고 전문점

☎ 053. 586. 9988

당성군 다사읍 새천리 1599-1

新 기장이라고

나뉘어있네!
나뉘어있어!



우리동네 주식구석, 코고 작은 소식들이 살아 있는 곳!
지역민을 위한 푸른방송 ch1
 우리동네 푸른방송 CS 푸른방송 제보 및 가입 A/S **551-2000**

사랑하는 사람에게
‘두근두근 고백 엽서’를 띄웁니다

달서구(구청장 이태훈)는 결혼
친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월광수
변공원에 ‘두근두근 고백 우체
통’을 오는 20일까지 운영한다.

결혼친화공원인 월광수변공원에 지난 10월 8일 두근두근 힐링 포토존 중 미라클 연인존에 ‘두근두근 고백 엽서와 고백 우체통’

연인이나 가족 등에게 평소 하지 못했던 사랑의 고백
이나 고마운 마음을 엽서에 답아 전하는 기회를 제공하
고자 마련하게 됐다.

이용은 누구나 가능하며, 고백 우체통 옆에 두근두근
엽서 1,500여 장과 필기구를 비치했다. 20일까지 모인
엽서는 연말에 받을 수 있도록 달서구민의 날인 22일 발
송예정이다. 〈자료제공:달서구청〉

〈자료제공:달서구청〉

푸른신문은 독자가 만드는 신문입니다.
푸른신문은 모두에게 열린 신문입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견디고 있는
우리 지역 달서구·달성군의
중소상인들에게 힘이 되고자 합니다.

독자 여러분이 기자가 되어
사람 사는 이야기, 우리 사는 이야기를 신문에 실어 보시
기 바랍니다.

나의 이야기도 좋고 주변의 이야기도 좋습니다.

원고를 써서 보내주셔도 좋고 제보만 해 주셔도 환영합니다.

살면서 느끼고 경험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사회가 만들어집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 보내실 곳

편집국 (053) 572-6000 / E-mail: pr5726000@naver.com
대구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323길 13 3층 (우편번호 42640)

▶보내는 방법

- 형식은 제한 없으나 원고를 써서 보내실 경우 1,000자 내외를 기본으로 합니다.
- 관련 사진 있으면 함께 보내주시고, 연락 전화번호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신문에 게재되신 분께는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자연속의 디지털 자동차극장

씨네80





상영시간

1회

18:30

2회

21:10

3회

23:45

상영시간표 당일 재확인 필수





www.cine80.co.kr

문의 : 984-8008

환경공무직 골병들이는 ‘100리터 봉투 사라진다’

시민이 봉투판매소에서 이미 구입한 100리터 봉투는 사용 가능
이불 등 부피가 큰 쓰레기 배출 수요 위해 75리터 공급

대구시와 구·군은 2022년 1월 1일부터 필수노동자인 환경공무직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00리터 종량제봉투 공급을 중단한다.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르면 배출자는 100리터 종량제봉투를 25kg 이하로 배출해야 하나, 그동안 일부 업소 등에서 무게 상한 규정*을 훨씬 초과해 30~40kg 이상의 무게로 배출하는 경우가 많았다.

* 종량제 봉투 무게 상한 규정⇒100리터: 25kg 이하, 75리터: 19kg 이하, 50리터: 13kg 이하

과도하게 배출된 100리터 종량제봉투는 환경공무직이 쓰레기 상·하차 작업 시 허리와 어깨관절 부상을 야기하고 각종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꾸준히 지적돼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대구시는 2022년부터 100리터 종량제봉투 공급을 중단하고, 이불, 솜인형 등 부피가 큰 쓰레기 배출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75리터 종량제봉투를 공급하기로 구·군과 협의했다.

또한, 봉투 판매소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100리터 종량제봉투 소진 시까지 시민에게 판매가 가능하고, 시민들은 기존에 구매한 100리터 종량제봉투를 기한 제한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자료제공:대구시청〉



대구환경공단 서부사업소 대명천 일대 하천정화활동 및 캠페인

대구환경공단(이사장 정상용) 서부사업소는 지난 9일 대명천 일대에서 하천정화활동 및 환경캠페인을 실시했다.

대구환경공단 서부사업소(사업소장 백상우)는 연말을 맞아 해 자전거도로 및 대명천 일대에 방치된 각종 생활쓰레기를 수거하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환경사랑캠페인을 전개했다.

〈자료제공:대구환경공단 서부사업소〉



대구강서소방서 동절기 골목길 안심소화기 합동점검

대구강서소방서는 의용소방대와 함께 지난 1일부터 10일간 관내 설치된 골목길 안심소화기 101개소의 유지·관리를 위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소화기함 내·외부 훼손 상태 점검과 결빙 방지를 위한 내부 습기 제거, 소화기 압력 및 사용여부 등을 확인해 불량 소화기를 교체하고, 인근 주민들에게 안심소화기 위치와 소화기 사용법을 설명했다.

골목길 안심소화기 사업은 2018년부터 시행돼 원룸 및 소방차 진입곤란 지역에 소화기를 비치해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진행된 사업이다.

박신영 기자

대구달서소방서 장애인 거주가정 소방시설 설치·지원

대구달서소방서는 일교차가 커지는 등 온열기 사용이 잦아짐에 따라 화재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어, 특히 화재위험에 취약한 장애인 거주가정 200여 가구에 이달 말까지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지원한다.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은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달서구지회에서 협조를 받아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세대 등을 추천받아 총 200여 가구를 선정해 이달 말까지 배부할 계획이다.

박신영 기자



jtbc2

재 미 를 담 다

jtbc2 채널번호
 푸른방송 8VSB 36-1, 디지털 44번 | IPTV KT olleh 39번, SK Btv 48번, LG U+ 40번 | SkyLife 45번

상인동 감성 술집 G-PUB

달서구 상인동에 위치한 먹자골목을 걸어 다니다 보면 아기자기한 테라스에 앉아 하하 호호 웃으며 분위기에 취해 술잔을 기울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마치 미국식 가정집을 연상케 하는 이국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곳. 감성 다이닝&펍! G.PUB을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가게에 들어서면 산뜻한 외관과 깔끔한 실내 인테리어, 주방은 오픈형으로 되어있어 젊은 이들의 취향을 반영한 듯하다. 그리고 운치 있는 야외 테라스도 있어서 이 가게가 더욱 매력적으로 느껴진다.

가게 이름만 봐서는 일반적인 술집으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장님은 사실 음식에 더 많이 치중하고 있다. 그런 노력의 결과인지 몰라도 여기는 다른 양식전문점 못지않은 고퀄리티를 자랑한다. 목살 플레이트, 바지락오일수트 등 시그니처 메뉴를 먹기 위해 찾아오는 손님이 많을 정도로 가게는 항상 인산인해이며, 단골층이 많은 가게라서 맛있는 음식을 손님들에게 대접하기 위한 사장님의 한결같은 모습은 언제나 멋있어 보인다.

메뉴 레시피는 사장님이 직접 다 연구하고 개발했다고 하는데 예전에 대기업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일한 적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처음 양식을 배웠던 경험이 지금까지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한 번 배우고 나니깐 여러 재료를 조합해서



새 음식을 만들어 내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고 하신다.

작년에 대구에 코로나가 엄청 심했을 때 몇 달 동안 영업을 못 하면서 배달을 준비할 때가 있었다. 힘든 시기에 착하고 고마운 손님들의 응원 덕분에 많은 힘이 났다. 항상 고생이 많으시다고 맛있는 음식 대접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이야기해주고 어떤 손님은 직접 만든 파김치를 가져다주기도 하셨다. “이런 가게는 망하지 말고 계속 운영해줬으면 좋겠다.”고 정성스레 쓴 손편지도 건네주는 손님도 인상 깊었다고 하신다. 이런 손님들 덕분에 힘 나고 항상 부족하지만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된다.

아무리 힘들어도 본질은 잃어버리면 안 된다. 장

사하면서 돈을 벌어 간다가 아닌 사람들 얻어간다는 말이 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다.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만두기보다는 더 잘하고 싶다.

각테일을 비롯해 다양한 종류의 술도 많기 때문에 술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좋을 것 같다. 또한 음식 맛도 술과 잘 어울리고 술을 부르는 그런 맛 이기에 새로운 느낌의 술집을 가고 싶다면 한번 가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조용히 식사도 하면서 술도 간단히 즐기고 싶을 때 오기 좋은 지펍(G.PUB)! 좋은사람들과 행복한 시간을 선물하기에 좋은 가게로 딱 좋을 듯하다.

손지안 기자

지펍(G.PUB): 대구 달서구 월배로48길 43
☎ 053-635-2727

효도 김장 담그기 행사

6·25참전유공자 달성군지회와 자유총연맹 달성군지회

지난 12월 6·25참전유공자회 달성군지회와 한국자유총연맹 대구달성군지회의 봉사 활동이 이어졌다.

6·25참전유공자회 달성군지회와 한국자유총연맹 달성군지회는 10여 년 동안 호국보훈의 달에 맞춰 6·25참전유공자 달성군지회 회원 150여 명을 초청해 매년 효도잔치를 이어왔으나, 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 효도행사 대신 김장 담그기와 나눔행사로 대신하고 있다.

화원읍 사무소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추경호 국회

의원을 비롯해 강성한 대구시의원, 그리고 자유총연맹 여성 회원 30여 명이 참가해 효도 김장 500포기를 담아 직접 기초생활 수급자 가정과 6·25참전유공자 회원들 가정에 따뜻한 위로의 말과 함

께 김장김치 300여 통을 전달했다.

또 12월 3일에는 6·25참전유공자회 달성군지회 회원들에게 따뜻한 겨울을 보내시라는 뜻으로 고급 이불 23채를 전달하는 등 생활이 어려운



가정과 참전 용사들의 가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

라며, 협력과 나눔의 의미를 다졌다.

전재경 기자

대구도시철도, PC·모바일 통합한 홈페이지 전면 개편

대구도시철도공사는 지난 9일 시민들께서 보다 쉽고 편리하게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새롭게 개편했다. 이번 개편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분야는 PC·모바일을 통합한 반응형 홈페이지 구축이다.

기존에는 모바일 홈페이지와 PC홈페이지가 별도로 관

리되고 모바일에서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이 제한적이었지만 개편된 홈페이지에서는 모바일에서도 PC와 동등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게시판 분류 개선과 보기 쉽고 직관적인 디자인 구성 등 정보 접근 편의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원하는 정보를 한 눈에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이용자 중심으로 꾸몄다.

박신영 기자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견디고 있는

우리 지역 달서구·달성군의 중소상인들에게 힘이 되고자

모든 지면 광고 50% 할인해드립니다.

문의 : 053)572-6000

MBC+
CREATIVE MEDIA GROUP

우리 엄마의 손맛이 확실합니다!



MBC every1

국내 최고 버라이어티 채널

MBC SPORTS

대한민국 No.1 스포츠 채널



MBC 금토드라마
옷소매 붉은 끝동



MBC drama

드라마로 꿈꾸는 세상

MBC M

내 손 안의 즐거움

주간아이돌



꿈이 진짜 가 되는 마법의 무대, 온 삶을 걸다

MBC 창사 50주년 특별기획

MBC ON

다시보는 감동, 함께하는 재미

MBC+
CREATIVE MEDIA GROUP



겨울이 다가오면서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은 코로나와 겹쳐져 올해 겨울이 더 춥게 느껴질 수도 있다. 도움의 손길
이 간절하게 필요한 이 계절에 '모두 함께 따뜻한 겨울을 보내자'는 이웃의 온정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달서구



월드마크웨스트엔드 부녀회 이웃사랑 후원품 전달
월드마크웨스트엔드 부녀회는 약 300만 원 상당의 극세사 이불과 매트 총 200채를 지난 6일 달서구에 기탁했다.



(주) 이월드 지역 청소년 문화체험 초청
(주)이월드(대표이사 방병순)는 저소득 청소년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자유이용권 1,000장 (2,700만 원 상당)을 지난 8일 달서구에 기탁했다.



달서구새마을회,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
달서구새마을회(회장 우동보)는 겨울철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마련한 김장행사에서 새마을협의회·부녀회, 직장·공장새마을, 새마을문고 등 회원 150여 명이 참여해 이른 아침부터 김장 준비에 나서 배추 4,000포기와 무 600개 등 재료를 직접 다듬고 정성껏 버무린 김장김치는 지역의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정, 사회복지시설 등 1,500여 곳에 전달해 코로나 19로 지친 이웃들과 서로를 격려했다.



중소기업중소상공인협회 달서지회 후원금 전달
중소기업중소상공인협회 달서지회(지회장 최호석)는 이웃사랑 후원금 100만 원을 지난 3일 달서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AK아이터어린이집·금봉어린이집 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에 후원금 전달
달서구(구청장 이태훈)는 지난 3일 지역 인재육성을 위해 써달라며 AK아이터어린이집(국공립) 100만 원과 금봉어린이집(국공립) 117만 2,310원을 (재)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달성군



소중한 인연 봉사회, 따뜻한 사랑의 이불 기탁
소중한 인연 봉사회(이사장 남태혁)가 지난 9일 화원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105만 원 상당의 이불 30채를 후원했다.



다사주민자치위원회, 다사읍에 백미 42포 기탁
다사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신동술)가 지난 9일 다사읍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백미 10kg 42포를 기탁했다.



논공읍이장협의회 후원금 100만 원 기탁
달성군(군수 김문오)이 지난 8일 논공읍이장협의회(회장 이순조)가 착한단체에 가입하고 후원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하빈면 노인회, 연말연시 온정의 손길 이어가
대한노인회 달성군지회 하빈면분회(회장 도록수)가 지난 8일 불우이웃돕기 성금 100만 원을 하빈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김권도)에 기탁했다.



김해 김 씨 세화문중, 다사읍에 라면 34박스 기탁
김해 김 씨 세화문중 종친회가 지난 8일 다사읍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라면 34박스를 기탁했다.

소문난 칠공주
본방송 월~금 1시
재방송 월~금 15시

土地
본방송 월~금 7시 30분
재방송 월~금 13시 30분, 23시

송봉산부인과
본방송 월~금 9시 30분
재방송 월~금 20시

채널번호 안내

www.highlightTV.co.kr **대구푸른방송 하이라이트TV** · 디지털 58번 · 아날로그 35번

내 고향 문화유적 탐방

송은석 (대구시문화관광해설사)
e-mail: 3169179@hanmail.net



196. 논공읍 남리 옛 절터[일명암지·솔봉사터]

1) 프롤로그

‘○○사지’, ‘○○암지’라는 말이 있다. 한자로 는 ‘寺址·庵址’다. 이는 과거에 불교 사찰이나 암자가 있었던 빈 터를 말한다. 우리 고향에도 이런 사(암)지가 많다. 특히 신라·고려시대 불교 성지였던 비슬산을 끼고 있다 보니 더욱 그렇다. 비슬산 자연휴양림 안에만 해도 염불암지·금수암지·용봉동 석불입상지 등이 있고, 비슬산 전체로 보면 골짜기마다 여러 사암지가 산재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암지는 깊은 산속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현풍읍 귀비사지·관음사지, 구지면 고봉리 일명사지, 옥포읍 김흥리 일명사지·본리리 일명사지, 화원읍 본리리 인흥사지 등도 있다. 하긴 7년 전만해도 비슬산 대견사 역시 대견사지였다. 몇 회에 걸쳐 논공읍 문화유적에 대해 이야기를 이어가는 중이다. 이번에는 논공읍 남리 한국폴리텍대학 뒷산 기슭에 남아 있는 한 암자 터에 대한 이야기다.

2) 일명암일까? 솔봉사일까?

우리나라의 사암지 명칭을 보면 이상한 점이 하나 있다. 유독 ‘일명사지’가 많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한 고봉리 일명사지·김흥리 일명사지·본리리 일명사지 등이 좋은 예다. 이를 두고 많은 이들이 오해를 한다. 과거 그 자리에 있었던 절 이름이 ‘일명사’였다고 그런데 그게 아니다. 일명사는 한자로 ‘일을 逸, 이름 名, 절 寺’, 이름을 잃어버린 절이란 뜻이다. 다시 말해 절터는 확인되었지만 그 터에 있었던 절 이름은 알 수 없어, 관례상 지명을 앞에 붙이고 ‘일명사’라 이름 한 것.

남리 옛 절터도 마찬가지다. 대부분 자료에서는 ‘논공읍 남리 일명암지’로 소개되어 있고, 일부 자료에서는 그냥 ‘남리 사지’로 되어 있다. 이 곳 역시 절터임은 확인이 되지만 절 이름은 알 수 없어 ‘일명암지’라 이름 한 것이다. 일명사가 아니고 일명암이라 한 것은 터의 규모가 작아 절이라기보다는 작은 암자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남리 일명암지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다 새로운 내용 하나를 접했다. 알려지지 않은 일명암의 이름을 제시한 자료였다. 논공지역 문화유적을 소개하는 다음 카페 “bookdong14”에서 자신을 남리 토박이로 소개한 윤영자 백 모씨는 일명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솔봉사터(率鳳寺址): 다른 이름으로 일명사터라고 한다. 남리 동쪽 산 19번지 산 능선 60m 지점에 솔봉사(일명사)터가 있다. 그곳에는 방형의 돌담이 둘러져 있으며 절터 위에는 작은 불상을 안치하고 촛불을 피워 기도처가 되어 있다. 남쪽 담장에 건립된 입석(立石)에는 나무(南無) 2자가 음각되어 있는데 나무관세음보살(南觀世音菩薩)을 새기려고 하였던 듯하다. 저의 부친은 어릴 때 절 건축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 후 절은 무너지고 잠시

산지기가 살다가 떠난 후에는 잡초가 우거진 잡초 밭이 되어 있었다. 제가 ‘소풀’을 하러 갔다가 우연히 절터를 답사한 적이 있다.

3) ‘南無’만 새긴 미완성 입석

현재 남리 일명암지에는 돌로 쌓은 석축 두 줄과 입석(立石) 4기 그리고 높이 약 30cm 정도 되는 작은 불상 한 기만 확인이 가능하다. 해발 약 100m 산기슭에 있는데 지금은 거의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다. 남아 있는 석축을 통해 일명암지를 추정해보면 일명암지는 정면에서 마주보았을 때 좌우보다는 상하가 좀 더 긴 역사다리꼴 형태다. 아래쪽과 위쪽에 각 한 줄씩 있는 석축으로 볼 때 대지는 상단·하단 2단으로 되어 있었던 것 같다. 또 맨 위쪽 좌측 모서리와 맨 아래쪽 우측 모서리 아래로 별도의 소규모 석축이 있는데 용도는 알 수 없다.

이곳에는 지금도 입석이 몇 기 서 있다. 『달성군 문화유적 지표조사보고서』(1997)에는 모두 5기라고 소개되어 있는데 현재는 4기다. 높이는 약 100-150cm, 폭은 50cm 쯤 된다. 이 중 하나에는 글자가 새겨져 있다. ‘南無’ 두 글자인데 자세히 보면 ‘無’자가 미완성이다. 아래에 붙는 ‘연화발[...]' 네 점 중에서 한 점만 찍혀 있기 때문이다. 아마도 나무아미타불이나 나무관세음보살 등을 새기려다 무슨 연유인지 완성을 하지 못한 모양이다. ‘나무’라는 말은 고대 인도어인 범어의 ‘나마스’를 한자로 표기한 것으로, 존귀한 대상을 따르고 그에 귀의한다는 뜻이다. 나무관세음보살과 나무아미타불은 관세음보살과 아미타불에 귀의한다는 의미다.

한 뼘 이상 쌓인 참나무 낙엽을 뒤지며 주변을 살펴보니, 낙엽 속에 일으켜 세우면 입석이 될 만 한 돌이 몇 개 더 보인다. 어쩌면 본래 세워뒀던 돌인데 세월이 흐르면서 자연적으로 쓰러진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4) 폐사후 민간 기도처

남리 일명암지는 ‘이름을 잃어 버렸다’는 명칭처럼 암자의 이름도, 또 언제 폐사가 된 것인지도 알 수 없다. 다만 앞서 잠깐 언급한 논공 토박이 백 모씨의 기술을 참고하면 20세기 초까지는 암자 건물이 존재했다는 점이다. 남아 있는 축대와 터를 고려하면 옛 일명암의 건물배치는 단순했던 것 같다. 상단에 범당 한 동이 있고, 하단은 그냥 뜰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낙엽을 뒤져가며 하단 쪽 바닥을 살펴봤지만 석탑부재에 해당하는 것은 보이지 않았다.

남리 일명암지를 소개한 여러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내용이 있다. “...이들 입석은 선사 유적에서 보는 그러한 성격의 입석이 아니라, 기도처로서 민간신앙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말



석축만 남아 있는 남리 일명암지



오른쪽 입석에 「南無」 두 글자가 보인다

하자면 이렇다. 과거 어느 때인가 이 자리에 불교 암자가 있다가 사라졌고, 이후 암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마을주민들에 의해, 이곳이 민간신앙 성격의 기도처로 활용된 것 같다는 말이다. 충분히 일리가 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골마을에는 돌기둥을 세워두고 ‘미륵불’이라 칭하며 민간신앙을 이어가는 곳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남리 일명암지는 찾는 이가 거의 없다. 일명암지와 논공읍은 서로 뻗히 내다 보이는 거리[200~300m]지만 그 사이로 중부내륙고속도로지선이 관통해 접근이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5) 에필로그

필자의 답사계획수첩에는 예전부터 남리 일명암지가 적혀 있었다. 매번 논공읍 관련 자료를 들추다보면 꼭 빠지지 않고 이곳이 등재되어 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금껏 인연이 닿지 않다가 최근 세 번에 걸친 답사 끝에 힘들게 일명암지를 찾았다. 앞서 두 번은 고생만 했고 세 번째 도전 끝에 성공했다. 혹시라도 필자 같이 고생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겠기에 일명암지를 찾는 요령 하나를 제시한다.

“일명암은 논공 남리 한국폴리텍대학 옆 성요셉 병원에서 정남쪽으로 약 300m 떨어진 고암선 철탑 바로 옆에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논공읍을 기준으로 중부내륙고속도로지선 건너편이란 점이다. 따라서 일찌감치 성하4리 마을회관에서부터 고속도로 동쪽으로 나 있는 옛 길을 따라 올라가야 찾을 수 있다”



기을 묻고 답하다

포용



구용희 건양사이버대학교 교수

직장 생활은 흔히 톱니바퀴로 표현되곤 한다. 얼마나 팀워크가 좋느냐에 따라 업무 성과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늘 대하는 사람들과고 해서 자기의 감정대로만 말할 것이 아니라 조금 언짢은 일이 있더라도 서로 배려해 주는 것이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이다.

지방으로 파견나간 김 대리는 그곳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 집들이를 하기로 결정했다.

새로운 동료들은 일을 마치고 작업복을 갈아입은 후 집들이에 참석했다. 그런데 한 동료는 급한 일 때문에 미처 옷을 갈아입지 못하고 작업복 차림으로 오게 되었다. 그 동료는 김 대리의 아내에게 이렇게 인사했다. “사모님, 작업복 차림으로 와서 죄송합니다.” 그 말에 김 대리의 아내는 방긋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어머나, 작업복도 멋 있는데요. 원래 옷걸이가 좋으셔서 그런가 봐요.” 작업복 차림으로 온 동료는 김 대리 아내의 상냥한 말 한마디에 편안한 마음으로 집들이에 참여

할 수 있었다. 만약 그녀가 “괜찮아요.”라고 짧게 대답하고 말을 했다면 그 사람은 집들이하는 동안 내내 자신의 작업복에 신경 쓰느라 제대로 어울리지도 못했을 것이다. “괜찮아요.”라는 말은 의례적인 말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의례적인 말은 결코 감동을 줄 수 없다. 상대방에게 그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기보다는 그저 허공을 떠다니는 말이 되고 만다.

반면에 이 과정은 오늘도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다. “뭐야? 이 서류 아직도 안 된 거야?” 부하 직원이 미안한 듯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아직까지 끝내지 못했습니다.”, “오늘까지 끝내야 한다고 도대체 몇 번이나 말 했어? 야근이라도 해서 끝내.” 이 과정은 자신의 지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분노로 부하 직원을 다그치고 말았다. 부하 직원은 자신의 잘못을 알고는 있지만 이 과정의 질책에 기분이 상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급한 거라면 미리 준

비해야지, 왜 이제 와서 나만 달달 볶는 거야.”라는 변명과 원망이 머릿속에 가득 차 야근을 해도 능률이 오르지 않는다. 만일 이 과정이 “이 서류들 정말 급한 거야. 내가 늦게 지시해서 미안하네. 만 가능하면 오늘까지 끝내주지 않겠나? 내일 아침 일찍 필요한 서류라서 말이야. 자네만 믿겠네.”라고 말한다면 부하 직원은 기꺼이 작업을 할 것이다. 상사가 자기를 믿는다고 말하면 굳이 야근하라고 하지 않아도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늦게까지 남아 즐거운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게 된다.

다른 사람의 실수를 이해하고 포용하는 말은 상대방에게 큰 힘이 된다. 특히 직장생활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느냐가 자신의 미래를 좌우한다. 상대방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사람의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마련이고 그것은 성공의 밑거름이 된다.

2021년 올 한해 달성을 빛낸 ‘군정 혁신 베스트 10’

달성군(군수 김문오)이 지난 13일 2021년 올 한해 달성을 빛낸 ‘군정 혁신 베스트 10’을 선정했다.

‘군정 혁신 베스트 10’은 안전, 환경, 상생, 지역 경제 활성화, 복지 등 군정 업무 전반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성과를 보인 달성군 우수 시책 10개를 선정하는 사업이다.

지난 11월부터 부서에서 제출한 17개 사업에 대해 1차 설문조사와 2차 심사위원 서류심사를 거쳐 최종 10개 사업을 2021년 군정 혁신 베스트 10으로 선정했다.

특히, 1차 설문조사는 군민이 직접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광화문 1번가로 설문조사 실시해 군민들의 군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군민이 공감하는 우수시책이 선정되도록 추진했다.

최종 선정 결과, 올해의 최고의 우수시책 사업은 ‘달성 미래의 꿈! 아동이 행복한 꿈을 꾸는 달성’으로 저소득층 책가방 지원 사업, 꿈을 담은



공부방 꾸미기 사업

스터디 사업, 공부방 꾸미기 사업을 통해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여 바른 성장과 발달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2위는 ‘송해 기념관 · 선비문화체험관 건립’으로 국민 MC 송해 선생 기념품 전시관 건립, 예절교육 및 한복체험 등이 가능한 선비문화체험관 건립, 소계정 및 백세정 투어, 주민쉼터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하여 송해공원을 찾는 군민들에게 송해 선생의 밝고 즐거운 이미지와 소계정의 선비

정신, 송해공원의 맑은 자연 경관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3위는 ‘전국 안전 1등 달성! 안전한 도시 달성!’으로 자연재해 개선 위험지구 정비, 재난 관련 유관기관 협업 체계 구축, 코로나19의 신속한 대응 및 확산 방지 노력 등을 통해 재난 사전 대비를 철저히 추진해 자연재난 지역 안전도 진단 A등급을 획득한 실적으로 3위를 차지했다.

김문오 달성군수는 “코로나의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소통과 협업을 통해 군민들의 정책 수요에 맞는 사업을 실시하여 다양한 우수 사업이 군정 혁신 베스트 10에 선정되었다”며 “앞으로도 군민이

국민연금 Q&A

Q. 반납을 하면 유리한가요?

A. 반납제도는 예전에 수령했던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해 공단에 반납함으로써,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복원해 연금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1999년 이전에는 가입자 자격 상실 후 1년 경과하면 반환일시금 청구 가능했음)

국민연금은 연금액 산정시 ‘소득대체율’이 반영됩니다. ‘소득대체율’이란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40년으로 전제했을 때 본인의 평균소득월액 대비 수령하게 되는 연금액의 비율을 말합니다. 2021년 현재 소득대체율은 43.5%로 국민연금 기금의 안정화를 위해 매년 0.5%씩 낮아져 2028년 이후에는 40%가 될 것입니다.

구분	1988~1998년	1999년~2007년	2008년~2027년	2028년 이후
소득대체율	70%	60%	50% (매년 0.5%씩 감소)	40%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소득대체율이 높은 예전 가입기간을 복원시키면 그만큼 연금수령액을 많이 늘릴 수 있습니다. 납부한 보험료 대비 혜택이 많은 기간이니 반납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면 반납을 하시는 것이 가입자 입장에서는 유리합니다.

반납금은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금액이 큰 경우에는 신청기간에 따라 3~24회까지 분할해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단, 반납금을 분할해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정기예금이자를 가산해 납부하셔야 합니다.

반납 전·후의 예상연금액을 비교해보시면 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니,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에 문의해 상담하시기 권해드립니다.

국민연금 대구지사 / 국번없이 1355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가겠다”고 말했다.
적으로 발굴하고 열린 군정을
실현해 행복한 달성을 만들어

〈자료제공: 달성군청〉

지역의 다정한 금융기관! 언제나 고객님과 함께하는 성서농협!

지역을 위한 한결같은 마음으로 성서농협이 함께 뛰고 있습니다.

성서농협은 농업인 조합원의 실익증대, 권익보호에 노력하여
이웃 주민들에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농협의 금융수익은 농업과 농촌을 위해 쓰이고 있습니다.

NH NongHyup

 **성서농협**

본 점 : 053)581-1811
하나로마트 : 053)581-1815

- 죽전동지점 : 053)562-9570
- 본리동지점 : 053)527-9077
- 강창역지점 : 053)583-3746
- 신 당 지 점 : 053)584-6236
- 용 산 지 점 : 053)588-1161
- 신용산지점 : 053)523-3300
- 신본리지점 : 053)558-5101

대구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 'STAC 최우수상' 수상

대구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등학교(교장 박유현)는 1학년 우준성(팀장), 강보민, 김성주, 김태환, 신현우 학생이 SK플래닛과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 개최한 국내 최대 청소년 앱 개발 경진대회 '스마틴 앱 챌린지(STAC) 2021'에서 '먹어보시개' 앱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전했다.

'먹어보시개' 앱은 반려견의 생명 존중이라는 가치를 추구하며 음식의 바코드를 스캔하거나 검색해 반려견이 먹을 수 있는지 혹은 먹으면 안되는지를 직관적으로 표시하고 그 음식의 상세정보 제공해준다. 또한, 사용자 위치 주변의 동물병원도 띄워주어 위급 상황 발생 시 빠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이번 대회는 생활정보, 엔터테인먼트, 미래 산업 등 총 3개 분야에

총 81개 학교 369개 팀, 1,294명이 참가해 그 중 예선과 본선을 통과한 54개 팀이 약 3개월의 교육과 멘토링을 받으며 진행됐으며 최종 27개 팀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수상팀 발표는 '2021 청소년 비즈쿨 페스티벌' 온라인 중계로 이뤄졌고, '먹어보시개' 팀은 수상팀 중에서 수상자 중에서 유일하게 1학년 학생들로 구성된 팀이라는 점이 눈에 띈다. 수상자에게는 상금 수여와 출시 서비스 마케팅과 사업화 지원 등 특전이 제공된다.

팀장 우준성 학생은 "이번 스마틴 앱 챌린지 대회를 통해 평소 반려견을 키우면서 불편하다고 느꼈던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해보았던 것과 팀장으로서 팀원들과 소통해 보았던



왼쪽 위부터 김태환, 신현우, 김성주, 강보민, 우준성

경험이 가장 소중했다. 그리고 프로젝트 활동을 계획하고 개발해 보면서 평소 자료들을 정리하는 습관도 가지고, 프로그래밍 지식을 적용해보면서 더 많은 동기부여를 갖게 됐고 더 큰 대회에 도전해보고

싶다"고 했다. 박유현 교장은 "학생들의 소프트웨어 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SW 관련 대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교내 소프트웨어 행사를 통해 다양한 경험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대구시교육청>

대구시교육청, SW-AI 교육 중점 중학교 14교 선정 2022~26학년도 5년간 운영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날로 중요해 지고 있는 소프트웨어(SW) 및 인공지능(AI)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SW-AI 교육 중점 중학교' 14개교 선정했다.

'SW-AI 교육 중점 중학교'는 중학교 단계부터 SW 및 AI 교육을 활성화해 학생들이 실생활 문제 해결 능력을 신장하기 위해 추진되며, 2022년 14교*를 시작으로 향후 30개교 이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14교 : 경운중, 경일여중, 달서중, 대건중, 대륜중, 대서중, 대진중, 덕원중, 상원중, 송현여중, 신명여중, 월암중, 제일중, 연풍중(가나나순 정렬)

지난 11월 공모를 통해 선정된 14개 학교 학생들은 2022년부터 5년간 주당 1시간 이상 확대된 SW-AI 교육을 받으며, 1학기 동안은 텍스트 기반 프로그래밍 언어를 익히고, 2학기에는 실생활 관련 문제 인식, 분석, 해결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다.

SW-AI 교육 중점 중학교에는 ▲학생 1인당 1노트북,

▲SW-AI 교육실 구축비, ▲기자재 구입비, ▲교육 활동 운영비 등 총 34억 원(교당 2억 4,000여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중점 중학교의 안정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SW, AI 교육 교수·학습 자료 제공 및 방학기간 동안 담당 교사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하고, 운영 학교 간 정보 공유를 위해 연간 2회 워크숍을 실시할 계획이다.

<자료제공:대구시교육청>

대구학생전자도서관, 신착 전자책 제공

대구2·28기념학생도서관(관장 황윤애)은 변화하는 독서환경에 발맞춰 디지털 세대의 온라인 독서활동 지원을 위해 '대구학생전자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

이용자 희망과 국립중앙도서관 등 독서 유관기관 추천 자료를 반영한 소장형 전자책은, 유치원생을 위한 그림책, 교과연계, 자녀교육 등 6,000여종 4만 1,000여 점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대구학생전자도서관은 교보문고와 연계해 구독형 전자자료 5만 4,000여종을 제공하고 있으며, 학교 교육과정 지원을 위한 한 학기 한 권 읽기, 2·28책 꾸러미, 인문교전 등으로 구성된 '함께 읽기 좋은 전자책'도 안내하고 있다.

대구학생전자도서관은 대구시교육청 소속 학생, 교직원, 학부모라면 누구나 학교 홈페이지와 대구교육포털(에듀나비) 회원 아이디로 전자책과 오디오북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문의)053-231-2854, 6 <자료제공 대구시교육청>



푸른방송 문화센터

2021 겨울학기 [감삼점]

회원 모집

강좌기간 2021. 12. 1(수) ~ 2022. 2. 28(월)

접수기간 2021. 11. 1(월) ~ 선착순 마감

접수문의 053)565-0877~8



※재료비 및 교재비 별도

음악

가야금

월 18:30~19:20
4회 40,000원 / 악기대여 월15,000원

클래식&포크 기타

수 10:30~12:00 / 70,000원

실용기타

수 19:00~19:50 / 120,000원

바이올린

목 19:00~20:00
120,000원 / 교재비 별도

드럼

화 18:30~19:30 (정원10명)
120,000원 / 준비물 : 드럼스틱, 패드

엄지피아노 칼림바

금 10:30~11:20 (성인)
토 10:00~10:50 (초등~성인)
120,000원 / 교재비 10,000원

소수정예 피아노

수 18:30~19:30 (초등~성인)
수 19:30~20:30 (초등~성인)
120,000원 / 교재비 별도
※수준별 맞춤레슨(정원3명)

오카리나

월 19:00~20:00 (초급)
화 10:00~11:00 (초급)
화 11:00~12:00 (중급)
90,000원

우리가락 민요

화 14:00~16:00 / 40,000원

지속미의 가곡클래스

월 19:00~20:30
수 10:30~12:00
70,000원 / 교재비 별도

하모니카

화 09:30~10:20 (초급)
화 10:30~11:20 (중급)
목 18:30~19:20 (초급)
목 19:30~20:20 (중급)
금 13:30~14:20 (초급)
금 14:30~15:20 (중급)
60,000원

미술

한국의 그림 민화

월 19:00~21:00 / 120,000원

한국화

목 14:00~16:00 / 120,000원

월요 수채화&소묘

월 10:30~13:00 / 120,000원

화요 서양화

화 10:30~13:00 / 120,000원

금요 서양화

금 10:00~13:00 / 120,000원

수요 수채화

수 10:30~13:00 / 120,000원

수요 저녁서양화

수 19:00~21:00 / 120,000원

목요 저녁 수채화

목 19:00~21:00 / 120,000원

연필초상화

월 10:30~12:30
목 18:30~20:00
120,000원 / 재료비 36,000원

전문지도자 과정

타로심리 2급

12/7~1/25 화 13:00~13:50
화 18:30~19:20
8회 150,000 / 재료비 25,000원

정리수납 전문가 2급

12/9~1/27 목 10:00~11:50
목 18:30~20:20
8회 135,000원 / 교재비 11,000원

시 창작 교실

화 19:00~20:30 / 150,000원

푸드카빙

12/8~1/12 수 19:00~21:00
6회 120,000원 / 재료비 120,000원
준비물 : 샤토나이프, 앞치마, 락앤락통

3D펜 창의융합 지도자

12/8~1/12 수 19:00~20:30
6회 90,000원 / 재료비 100,000원

꽃차 마이스터 3급

12/3~2/4 금 10:00~13:00
10회 300,000원 / 재료비 200,000원

커피바리스타

목 10:00~11:30
화 19:00~20:30
120,000원
재료비 200,000원
교재비 25,000원

보드게임 자격증

수 10:30~12:00
120,000원
교재 · 교구비 50,000원

요리

※담아갈 반찬통 준비

| 퇴근 후 배워보는 요리 월 19:00~21:00 / 4회 24,000원 / 재료비 60,000원

12/6~12/27 스페셜 레시피

1회 해물누룽지탕, 중국식오이피클무침
2회 돈까스샐러드, 규동
3회 에그베네딕트, 콘슬로우
4회 부추잡채&꽃빵, 류산술

1/3~1/24 실생활요리 I

1회 쇠고기우영조림, 김치생콩비지찌개
2회 매운해물잡채, 안동찜닭
3회 시원한동태탕, 뚝배기김치알밥
4회 두부자돌박이조림, 표고버섯양념조림

2/7~2/28 실생활요리 II

1회 돼지고기장조림, 코다리찜
2회 토마토스튜, 불고기케사디아
3회 진미채무침, 식한겻잎김치
4회 치즈불닭, 연근유자피클

| 홈메이드 디저트 제과 금 10:30~12:30 / 4회 24,000원 / 재료비 60,000원

12/3~12/24 카페 디저트

컵케익 / 파이 / 마카롱 / 미니큐브케익

1/7~1/28 구운과자 클래스

마들렌 / 휘낭시에 / 스콘 / 쿠키 / 카놀레

2/4~2/25 초콜렛 클래스

수제 가나슈 / 몰드초콜릿 / 아몬드 / 쿠키 / 초코브라우니

어린이 강좌

종이접기 박사과정

토 11:00~11:50 (초등)
80,000원 / 재료비 15,000원
교재비 7,000원 / 준비물 : 딱풀, 가위

수채화&디자인

토 11:00~11:50 (8세이상)
토 12:00~12:50 (6,7세)
1시간 100,000원 / 2시간 140,000원
재료비 10,000원

아이클레이

1/8~2/26 토 12:00~12:50 (6세이상)
8회 48,000원 / 재료비 24,000원

재미있는 키즈쿠킹

둘째,넛째 토 13:00~13:50 (5세이상)
1회 5,000원 / 재료비 10,000원
※준비물 : 앞치마
12/11 브래드야발소 샌드위치
01/15 라이언버거
01/29 겨울왕국케이크
02/12 발렌타인 초코팝스틱
02/26 피카츄피자

재미쑥쑥! 종이접기

토 12:00~12:50 (7세이상)
80,000원 / 재료비 20,000원

창의두뇌 보드게임

토 10:00~10:50 (6,7세)
토 11:00~11:50 (초등)
90,000원 / 교구대여비 5,000원

주산식 암산

토 10:00~10:50 (7세이상)
80,000원 / 재료비 8,000원

3D펜 창의융합 주니어반

토 11:00~11:50 (7세~초등)
90,000원 / 재료비 45,000원

발표력 키우는 동화구연

목 18:00~18:50 (6,7세)
80,000원 / 재료비 10,000원

역사인물 동화구연

목 17:00~17:50 (8세이상)
80,000원 / 재료비 10,000원

K-POP 방송댄스

토 10:00~10:50 (6세이상)
토 11:00~11:50 (6세이상)
70,000원
준비물 : 실내용화, 물병

팡야팡야 음악줄넘기

토 13:00~13:50 (7세이상)
80,000원
준비물 : 실내용화, 줄넘기

팡야팡야 유아체육

토 12:00~12:50 (5~7세)
80,000원
준비물 : 실내용화, 물병

건강/운동

라인댄스

화,목 13:00~13:50 / 주2회 120,000원

소셜댄스

화,목 14:00~14:50 / 주2회 120,000원

댄스스포츠

화,목 15:00~15:50 / 주2회 120,000원

줄바 다이어트댄스

월,금 14:00~14:50
주2회 120,000원/ 준비물 : 실내용화

한국무용&우리춤

월,수 12:30~13:30
주1회 60,000원 / 주2회 80,000원

요가&필라테스

월,수,금 10:00~10:50
주3회 120,000

저녁 필라테스

월,수 19:00~19:50
주2회 120,000원
준비물 : 세라밴드

플렉스 요가

화,목 18:10~19:00
화,목 19:20~20:10
주2회 90,000원
준비물 : 세라밴드

어린이 음악

토요 우쿨렐레

토 14:00~14:50 (9세~성인)
90,000원 / 개인악기준비

영어로 배우는 오카리나

월 18:00~18:50 (8세이상/10명)
90,000원 / 개인악기준비

엄지피아노 칼림바

토 10:00~10:50 (초등~성인)
120,000원 / 교재비 10,000원

드럼

화 17:30~18:20 (3학년이상)
120,000원 / 준비물 : 드럼스틱, 패드

소수정예 피아노

수 18:30~19:30 (초등~성인)
수 19:30~20:30 (초등~성인)
120,000원 / 교재비 별도

어린이 하모니카

토 13:00~13:50
60,000원 / 교재비 5,000원

바이올린

목 18:00~18:50
120,000원 / 교재비 별도

※강좌기간 : 2021. 12. 1(수) ~ 2022. 2. 28(월)

※접수문의 : (감삼점) 565-0877~8

※푸른방송 문화센터는 3개월 단위 학기제 운영을 기본으로 하며, 법정공휴일은 휴강하며 별도 보강은 없습니다.



푸른방송 공식 SNS에서 지역소식과 이벤트, 강좌정보를 만나보세요.

대구교육박물관 하반기 기획전시

‘대구읍성, 새로운 도시의 탄생’

대구교육박물관(관장 권정학)은 12월 10일(금)~2022년 4월 10일(일)까지 대구읍성을 주제로 한 기획전시 ‘대구읍성, 새로운 도시의 탄생’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대구의 도시 성장과 발전을 이미 114년 전에 사라져 지금은 흔적만 가능해졌 뿐인 대구읍성과 함께 살펴보는 전시로 조선시대 대구가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을 알아보고, 대구읍성과 관련된 역사적 상황과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 조선 후기 새로운 도시로 성장하여 지금까지 이어진 대구의 면모를 살펴보는 자리다.

전시는 크게 3가지 공간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공간 ‘대구, 경성의 중심이 되다’는 1601년 경성김영 설치와 함께 행정 중심 도시가 된 대구를 보여주는 공간이다. 대구가 김영지로 선택될 수 있었던 배경과 경상감영의 의미와 역할, 그리고 감영의 기능과 감영에 비鄰한 지역을 다스린 관

할사의 활동을 통해 도시로 본격적인 성장을 시작한 대구의 모습을 알아본다.

경상감영 운영의 행정 사안을 기록한 상주박물관 소장 ‘영영사례’를 비롯해 경상감영과 관련된 다양한 유물을 소개한다.

두 번째 공간 ‘읍성, 대구를 보호하나’에서는 대구읍성의 축성 배경과 축성 상황에 대해 알아본다. 감영이 설치된 후 읍성이 축성되기까지의 국가 방위 정책의 변화 모습과 읍성 축성을 필요하게 한 당시 사회 모습을 설명하고, 대구읍성의 축성과 수성(修城)에 직접적 관련이 있는 4명의 인물(영조, 조현명, 민응수, 김세호)의 이야기를 오디오로 구성해 들려준다.

세 번째 공간 ‘도로, 도시를 변화시킨다’는 도시의 입지에 핵심적 요소인 도로가 대구읍성과 대구의 도시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이야기한다.

도로와 말(馬), 그리고 기차로 이



상주박물관 소장 ‘영영사례’

어지는 이들 수년의 변화와 이에 따르는 도로의 변화가 읍성의 해체와 대구라는 도시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통해 오늘날 대구의 도시 모습을 이해해보는 공간이다.

조선 후기 도로에 대한 기록인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도로고(道路考)’를 비롯해, 오늘날 도로에 남아있는 대구읍성의 흔적을 보여주는 공간이다.

이 외에도 이번 전시를 찾는 시민들은 ‘영영축성비(嶺營築城碑)’의 기록으로 (양력) 12월 13일이 선회날에서 대구읍성 낙성전치가 열릴 날임을 알게 될 뿐 아니라, 읍성주어들의 당시 생활을 극화한 ‘독백’도 볼 수 있으며, 대구읍성 남문인 영남제일문을 스크린 삼아 재구성한 영상도 좋은 볼거리가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 자료에 수록된 ‘1907년 경상감영 공해도(公廨圖)’를 통해 대구읍성의 종신인 경상감



영영축성비

영 내의 건물들이 품은 이야기도 함께 들을 수 있다.

권정학 관장은 “이번 기획전은 대구읍성의 존재감을 키워 대구의 미래를 빛낼 콘텐츠로 재탄생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말하며, 이번 전시를 통해, “대구시민의 마음 속에 언제나 최고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고 있는 대구읍성의 다양한 가치를 알려주고, ‘축성(築城)의 교훈’ 고나는 ‘해원(戡亂)의 중요’로만 남은 대구읍성의 존재를 재인식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대구교육박물관>



축성주역 4인(영조, 조현명, 민응수, 김세호)을 표현한 그림



GCS 푸른방송 86번에서 채널숨을 만나보세요

달성군립도서관

한국 최초 전통 차 전문도서관 '수류화개(水流花開)'

달성군립도서관(관장 조병로)이 지난 7일 김문오 달성문화재단 이사장, 김의정 명원문화재단 이사장, 백영규 도예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통 차(茶) 관련 기증식을 열고 국내 최초로 차(茶) 전문도서관 '수류화개(水流花開)'를 개관했다.

이날 행사는 한국 전통 차 발전에 지대한 공을 세운 명원 김미희 여사의 차녀인, 명원문화재단 김의정 이사장이 전통 차 전문서적을 선친(쌍용그룹 설립자 김성근, 1913년 7월 14일 출생)의 고향인 달성군에 기증 의사를 밝히면

서 추진하게 됐다.

김의정 이사장(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제27호 궁중다례의식 보유자)이 도서 300권, 백영규 도예가(경상북도 무형문화재 제32-다호 사기장 백자장)가 다기세트 10여 점 등 총 70점을 기증한 이날 행사는 전통 차 문화를 나누고, 즐기고, 배우려는 다양한 세대의 지역주민들이 참여해 '전통'이라는 이름 아래 어우러진 작지만 뜻깊은 축제였다.

조병로 관장은 "한국 최초의 차 전문도서관 개관을 시작으로 달성군의 전통 차 역사와 문화를 재조명하는 수준



높은 특별기획전을 마련할 것이다"라며 "달성군립도서관은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와 기대에 부응해야 하는 곳인 만큼 앞으로도 다양하고, 차별화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달성군의 차 역사는 고려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비슬산에서 22년간 주석한 시대의 고승 일연이 삼월 삼짇날 차 공양을 한 삼국유사의 기록이 그것이다. 이를 토대로 달성군은 2017년 3월 달성군청 앞마당에서 신춘야

차회를 개최했으며, 2017년 9월에는 국립대구과학관, 2018년과 2019년에는 송해공원에서 차 문화 행사를 진행하였고 지난 4월에는 달성군립도서관 주최로 다사읍 죽곡 댕 앞소리길 광장에서 신춘야차회를 개최했다.

〈자료제공:달성군립도서관〉

세익스피어의 로맨틱 코미디 '십이야'

대구시립극단은 제52회 정기공연으로 세익스피어의 로맨틱 코미디 '십이야'를 12월 25일까지 대구문화예술회관 비슬홀에서 공연한다.

'십이야'는 크리스마스로부터 12월이 지난 1월 6일로, 크리스마스 축제 기간의 마지막 날을 뜻한다.

작품명처럼 공연은 마치 일상을 벗어난 축제와 같은 가상의 세계를 보여준다. 극은 얽히고 설킨 남녀 간의 사랑이야기를 중심으로 경쾌한 음악과 다양한 유희적 요소로 축제 분위기를 자아낸다.

공연은 평화롭게 향해하던 배가 갑작스런 폭풍으로 난파되면서 쌍둥이 남매가 각자 생사할 수 없이 헤어지면서 시작된다. 간신히 일리리아라는 마을에 도착한 여동생은 낯선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남장을 하게 된다. 뒤늦게 쌍둥이 오빠도 일리리아에 도착하면서 두 사람을 한 사람으로 착각하는 이들로 인해 일어나는 해프닝을 유쾌하고 코믹하게 보여준다. 힘든 상황을 극복하고 맞이하는 해피엔딩은 관객에게 희망과 긍정의 에너지를 전한다.

박신영 기자



집과 가족의 의미 성찰 '집의 기억'展

대구문화재단은 기획전시 '집의 기억'展을 12월 31일까지 대구생활문화센터에서 개최한다.

모두의 갤러리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기획전시는 생활문화동호회원 '몽 2018' 팀과 지역 예술인 '나동석' 작가와의 매칭을 통한 협업 작업으로 기획됐다.

'집의 기억'展은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는 일상 속의 집이라는 공간에서 개인이 느끼는 외부와의 단절로 인한 소외와 외로움, 가족을 통해 느끼는 다양한 감정과 경험들에 대한 해석을 담아 '집과 가족의 의미 성찰'이라는 주제로 6개의 협업 작품들을 선보이고 관람객에게 메시지를 전달한다.

또한, 도예와 미디어아트 장르의 융·복합 작품들을 폐쇄된 공간에서 입체적인 작품의 색채, 움직임, 공간음향을 경험할 수 있는 장치와 함께 구성해 관람객이 작품에 몰입하고 일치감을 느끼며 작품과 소통하게 되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박신영 기자



대구시립국악단, 제203회 정기연주회 ‘세밀공연’

‘수제천’을 차용한 국악관현악 ‘개천(開天)’ 초연

대구시립국악단은 제203회 정기연주회 ‘세밀공연’을 12월 22일(수) 오후 7시 30분 대구문화예술회관 팔공홀 무대에 올린다.

이번 연주회는 시립국악단의 2021년 마지막 정기연주회로, 국악 협주곡과 초연되는 국악관현악곡, 합창과 국악관현악으로 규모 있는 무대를 선사한다.

1부 첫 문을 여는 곡은 국악관현악 ‘개천(開天)’이다.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고자 하늘에서 환웅이 내려왔던 대한민국 건국신화를 바탕으로 한 이 곡은, 세상의 태평과 인간의 번영을 노래한다. 대구시립국악단 단원으로 있는 작곡가 강한 피가 쓴 작품으로, 이번 무대에서 처음으로 관객에게 소개된다.

생황 협주곡 ‘저 하늘 너머에’ (작곡_최성무)는 생황 특유의 음색과 함께 서정성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한국생황악회 대표로 있는 연주자 김계희가 생황의 독특하고 아름다운 음색을 선사한다. 천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 악기이자, 국악기 중 유일하게 화음을 낼 수 있는 생황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1부 마지막 곡 대금협주곡 ‘하늘소리, 청성(淸聲)’ (작곡_권은실)은 대금의 화려한 시김새와 길게 뻗어내는 소리를 극적으로 대비시켜 우아함



과 신비로움을 자아내는 청성곡과 정악의 아름다움 위풍당당함을 함께 엮어 새로운 느낌으로 청중에게 다가가는 곡이다. 국립국악원장을 역임하고 서울대학교 국악과 교수로 재직 중인 임재원의 인상 깊은 대금 연주로 1부가 마무리 된다.

공연의 2부는 대규모 합창과 국악관현악 연주

로 장대한 무대를 선사한다. 작곡가 이정호의 국합창과 진도씻김굿, 국악관현악을 위한 ‘진혼’과 국악관현악을 위한 교향곡 제1번 ‘별’ 4악장이 연이어 펼쳐진다. ‘진혼’은 국악 레퀴엠으로 죽은 자의 영혼을 위로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쓰여진 곡이다. ‘별’은 국악관현악과 사물놀이, 합창이 함께 하는 거대한 곡으로, 이번 연주회에서는 그 중 합창이 함께 하는 4악장을 선보인다. 인도의 시인 타고르의 시집 ‘기탄잘리’에서 가져온 합창 가사와 함께, 장중한 정악풍의 선율이 빠르게 흐르는 자진모리장단과 어우러지는 실험적인 곡의 흐름을 만나볼 수 있다. 대구시립국악단의 연주에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콰이어의 합창으로 무대가 완성된다.

대구시립국악단 이현창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는 “뛰어난 연주자의 협연곡과 이번 무대에서 초연되는 국악관현악곡, 그리고 장대한 합창곡으로 올해 마지막 정기연주회의 무대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특히, 2부 합창무대는 코로나 상황으로 몇 차례 미루었던 기획이라 더욱 심혈을 기울여 준비했다”며 기획의도를 밝혔다. ‘세밀공연’의 입장료는 1만 원으로 문의는 대구문화예술회관 (053-606-6193), 예매는 티켓링크(1588-7890)를 통해 할 수 있다. <자료제공:대구시립국악단>

대구문인협회 ‘2021겨울문학제’

대구문인협회 2021겨울문학제가 지난 10일(금) 대백프라자 프라임홀에서 열렸다.

매년 대구지역 문인들의 시상식을 가져온 대구문인협회가 올해도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겨울문학제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국민의례와 내빈소개 그리고 권영진 대구시장을 대신해 정미정 대구문화체육관광국 문화콘텐츠과장의 축사와 김종성 대구예총회장의 축사, 그리고 신입회원 소개와 각 부분별 시상으로 이어졌다. 먼저 권영욱 회원을 비롯해

11명의 첫 작품 기념패 증정을 시작으로, 노기정, 우일우, 이정희 3명의 신인상 수상과 시, 소설, 시조, 아동문학, 수필 등 각 부분별 시상으로 이어졌다. 또, 대구문인협회가 선정한 문학상 수상에는 ‘달의 물방울’을 낸 이유환 시인과 ‘히포가 말씀하시길’의 저

자 이근자 소설가가 수상했으며, 전정남 아동문학가가 ‘봄비 소곤대다’로 아동문학상에, 그리고 올해의 작가상에는 수필집 ‘아하’의 작가인 박수옥 수필가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심후섭 대구문인협회장은 인사말에서 “여러 개인적인 사정과 뜻하지 않은 시대적인 상황으로 어려움이 많았겠지만, 그럼에도 꾸준한 노력으



로 큰 업적을 이룩하신 회원님들께 다시 한 번 마음 다해 깊이 축하드립니다”고 전했다.

전재경 기자



iHQ DREAMAX k-star CUBE TV SANDBOX+

11월 10일 밤 9시 iHQ 첫방송



‘나드리콜’ 12월 16일부터 새롭게 변화합니다

휠체어 장애인 우선 배차 서비스 도입
근거리 차량 선택 및 배차 시스템으로 대기시간 줄이고 효율성 높여

대구시설공단(이사장 최길영) 나드리콜은 12월 16일(목)부터 새로운 관제시스템을 도입하고 휠체어 장애인 우선 배차와 고객 편의성 개선으로 더 나은 서비스 제공에 나선다고 밝혔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들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나드리콜’은 현재 408대의 차량으로 운영되고 있다.

2021년 11월 기준 대구시설공단 나드리콜의 등록회원은 3만 154명, 연간 이용건수는 125만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복지·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으로 매년 20% 이상 등록자수와 이용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10년 만에 교체되는 새로운 나드리콜 관제시스템은 기존에는 특정차와 장애인콜택시를 구분 없이 배차했으나 이번 서비스 개선으로 휠체어 이용고객이 특정차량에 우선 배차될 예정이다.

그리고 근거리 차량선택 및 배차 시스템 도입으로 차량과 고객의 지도상 직선거리가 아닌 실제 도로상의 이동거리를 계산하는 체계로 고객의 대기 시간을 줄여 만족도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이 밖에도, 고객배차 후 휴대폰 문자로 실시간 차량 이동위치와 도착시간을 제공하는 등 사용자 중심의 편의 시스템도 도입한다.

12월부터는 특정차 13대를

현장에 추가 증차해 대기시간 단축 등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차량 수요량 및 고객 대기 시간 등의 빅데이터 분석과 중·장기적 차량공급 확대로 운행 효율 확산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장은 “새롭게 개편되는 운영 시스템 도입으로 이용고객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들이 친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시설공단 최길영 이사

〈자료제공:대구시설공단〉

건강칼럼



보생조한의원 원장 조현정



손 대면 툭-하고 터질것만 같은 내 마음, 화병

하고싶은 말을 속으로 꼭 심키다가 속에서 뭔가 치밀어 오르는 느낌과 함께 가슴이 답답하고 두근거리는 증상을 경험해본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화병(火病)이란 분노, 억압된 감정이 해소되지 못하고 참는 일이 반복되다 화(火)의 양상으로 폭발하여 나타나는 증상을 말한다.

예전에는 40-50대 중년여성에게서 주로 발생했으나, 최근에는 여러 이유로 남녀노소 관계없이 발병하고 있다. 진료실에서 만나는 화병환자들의 연령이 더욱 어려워지는 느낌을 받기도 한다.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화병을 의심해볼 수 있다.

- ▣ 가슴이 답답하고 목이나 명치에 뭉쳐진 덩어리가 있는 것 같다.
- ▣ 열감이 자주 느껴지고 상체로 열이 치밀어 오르는 느낌이 자주 든다.
- ▣ 입이 마르거나 목이 마른다.
- ▣ 두통 또는 어지러움이 발생한다.
- ▣ 밤에 잠들기 어렵거나 자다가 자주 깬다.
- ▣ 가슴이 두근거린다.
- ▣ 소화가 잘 되지 않고 쉽게 숨이 찬다.
- ▣ 사소한 일에도 쉽게 화가 난다.

화병을 치료할 때는 환자의 증상과 체질, 원인에 따라 각자 다른 치료법을 사용하게 된다.

침구치료는 지금 당장의 증상을 일시적으로 완화시켜 나가고, 한약은 울체된 기운을 풀고 부족한 장부의 기능은 돕고 강한 장부는 빼주어 장부의 균형을 맞춘다. 이를 통해 수승화강(水升火降)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여 화병을 치료한다.

화병은 치료 종결 이후에도 스트레스에 의해서 재발하기도 하여 평상시 스트레스를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르다. 어떤 사람은 운동에 의해서 행복감을 느끼고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만나면서 스트레스를 풀기도 한다. 헬스, 요가, 필라테스, 명상, 대화, 종교활동, 그림그리기 등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통해 화가 스스로를 향해 오는 것을 좋은 방향으로 분출하고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해야한다.

대구시달서구 달구벌대로 1607 / 보생조한의원 ☎053-564-0401



계명대 동산병원 국내 최초 ‘고정밀 방사선 암 치료기’

계명대학교 동산병원(병원장 황재석)이 암 환자 치료에 보다 정확성과 안정성을 높인 최신행 고정밀 방사선 암 치료기를 국내 최초로 도입했다.

동산병원이 도입한 방사선 치료기는 바이탈 빔 SRS 패키지(VitalBeam SRS package) 방사선 치료기로, 기존의 바이탈 빔 치료기에 2.5mm MLC(다엽 콜리메이터)와 6D-Couch(6차원 침상)를 장착한 국내 최초의 치료기다. 이 치료기는 기존 장비들에 비해, 환자의 종양 모양을 더욱 정밀하게 맞추어, 주변 정상조직에 불필요한 방사선 조사를 줄일 수 있다. 또한, 6차원 환자 테이블로 환자의 자세를 매우 정밀하게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방사선치료가 더욱 정확하게 이뤄져 환자 치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황재석 동산병원장은 “우리 동산병원은 암 환자들을 윈스톱으로 케어하는 특화된 암병원 건립을 추진 중이며, 지역 최초로 양성자 치료기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번 최신행 방사선 치료기 도입을 비롯해 앞으로도 고통 받는 암환자에게 더욱 밝은 치유의 빛을 전할 수 있도록 꾸준히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계명대 동산병원은 지난달 방사선종양학과에서 ‘고정밀 방사선 암 치료기 도입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세엽 동산의료원장, 황재석 동산병원장을 비롯한 병원 관계자들이 참석해 장비의 우수성에 대한 설명시간을 가졌다.

〈자료제공:계명대 동산병원〉

12월 20일 ~ 26일



재미로 보는 운세



36년생 돈을 쓸 일이 많아지니 신중해야 한다. 48년생 운전을 해야 한다면 한눈을 팔지 마라. 60년생 사소한 일도 신경 써야 억울함이 없다. 72년생 기회는 생각지도 못하고 있을 때 찾아온다. 84년생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 곧 도움이 된다. 96년생 사소한 일에 대해서는 마음을 쓰지 말라.



37년생 너무 나서려고 하면 욕을 먹을 수 있다. 49년생 계획 없이 일을 추진하니 시간 낭비한다. 61년생 모험을 두려워하면 성공하기 힘들다. 73년생 아무리 힘든 일도 시간이 지나면 쉽다. 85년생 자신이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정리하라. 97년생 좋은 일을 널리 알리는 것은 바른 일이다.



38년생 자신의 말과 행동에 주의해야 한다. 50년생 한번 정한 결정은 끝까지 밀고 가라. 62년생 규칙을 잘 지켜야 일이 막히지 않는다. 74년생 특별히 애쓰지 않아도 운이 좋아진다. 86년생 남의 의견만 듣다가 고생을 하게 될 수 있다. 98년생 걱정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빨리 움직여야 한다.



39년생 남에 것에 욕심 내지 말아야 한다. 51년생 자존심을 버리면 길이 보인다. 63년생 계산을 잘해야 손해 보지 않는다. 75년생 조금만 참으면 좋은 결과가 나온다. 87년생 좋은 일이 연달아 생기니 기분이 좋다.



40년생 계획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 52년생 조금은 늦어질 수 있는 시기이다. 64년생 지나친 자신감은 문제를 일으킨다. 76년생 조심스럽게 움직이니 위기가 없다. 88년생 달콤한 이야기에는 함정이 있는 법이다.



41년생 기회가 올 때 붙잡기 위해 노력하라. 53년생 작은 것에 만족해야 큰 것을 얻는다. 65년생 일이 조금은 막히게 되지만 걱정마라. 77년생 자존심을 버리면 이익이 생길 수 있다. 89년생 사람을 믿으면 끝까지 믿어야 한다.



42년생 일이 잘 풀리지 않을 수 도 있다. 54년생 다른 사람의 일에 관여하지 마라. 66년생 너무 잘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다. 78년생 부지런하게 움직이면 막힘이 없다. 90년생 다른 사람의 일을 대신해주면 보답이 따른다.



43년생 약속이 있다면 지키기 위해 노력하라. 55년생 작은 것에 욕심을 내면 오히려 손해 본다. 67년생 친구를 만나서 도움을 받게 된다. 79년생 재물 운이 좋아지게 되는 시기이다. 91년생 무리해서 좋을 일은 단 하나도 없다.



44년생 마음에 여유가 생겨야 이득도 생긴다. 56년생 작은 실수가 모이면 일에 장애가 생긴다. 68년생 규칙을 어기면 어려움이 가중된다. 80년생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 92년생 자신만 특별하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45년생 도움을 바라지 말고 최선을 다하라. 57년생 자신의 능력을 먼저 파악해야 한다. 69년생 모든 일은 순서대로 흘러갈 것이다. 81년생 어려운 일을 만나면 도움을 청하라. 93년생 무엇이 좋은 판단인지 제대로 고민해야 한다.



46년생 아무리 쉬운 일이라도 방심하지 마라. 58년생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때이다. 70년생 아무런 노력 없이 얻으려 하지 마라. 82년생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94년생 어떤 선택을 하든지 결과는 팬창을 것이다.



47년생 어려움이 알아서 피해가게 될 것이다. 59년생 경쟁을 하면 패할 수 있으니 주의하라. 71년생 혼자서 잘하려고 해 봐야 고생만 한다. 83년생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고생할 수 있다. 95년생 어려움에 처해도 실망하지 말아야 한다.

제공: 당신의 멘토, 운조아(www.unjoa.com)

주간 일기예보

출처:네이버 날씨

12월 16일 목요일



최저 3°C
최고 9°C

12월 17일 금요일



최저 0°C
최고 2°C

12월 18일 토요일



최저 -7°C
최고 3°C

12월 19일 일요일



최저 -2°C
최고 8°C

12월 20일 월요일



최저 -1°C
최고 10°C

12월 21일 화요일



최저 0°C
최고 11°C



시사상식 방역패스

☞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거나 코로나19 음성을 확인했다는 일종의 증명서를 말한다. 이는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방안 중 하나로, 집단감염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는 다중이용시설에 출입할 때 백신 접종 완료 또는 코로나19 음성을 증명하도록 하는 것이다. 방역패스는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경마·경륜·경정, 카지노업장, 실내체육시설(헬스장·탁구장·스크린골프장·당구장·볼링장)과 같은 고위험 다중이용시설과 의료기관, 요양시설, 중증장애인, 치매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 입원할 때나 환자·임소자를 면회할 때 요구된다.

백신 접종 완료 후 2주가 지났다면 전자예방접종증명서 COOV(쿠브) 애플리케이션이나 카카오톡·네이버 QR코드를 제시하면 된다. 또 종이 증명서(보건소·별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발급)나 예방접종스티커(신분증에 부착하여 사용) 등의 사용도 병행한다. 미접종자의 경우 48시간 내 선별진료소·임시선별검사소·의료기관 등에서 받은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시해야 한다. 다만 미접종자 중 PCR 음성확인자,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완치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백신접종 예외자는 방역패스 예외 대상이어서 증명서가 없어도 시설 출입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한편, 정부는 2021년 11월 29일 코로나19 백신 기본접종 완료자도 백신을 맞은 지 6개월이 지나면 추가접종을 하도록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12월 20일부터 시행되는데, 접종을 완료한 날로부터 6개월까지만 유효하다. 6개월이라는 기간은 권장 추가 접종 간격 5개월에 접종 날짜를 맞추어 여유를 1개월 더한 것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한번에 받으니까 더 놀라운 혜택

현명한 선택
결합 상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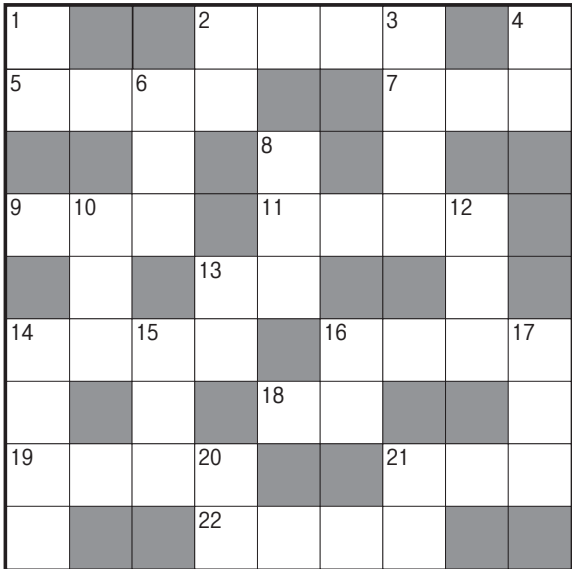


지금바로! (053) 551-2000 www.gcs.co.kr



제1,053회

가족과 함께 풀어보세요.



① ‘가족과 함께 풀어보세요’ 낱말퍼즐을 만들어 푸른신문으로 보내주세요. 채택된 분께는 작은 선물을 우송해 드립니다.

▶보내실곳: 42640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323길 13 (감삼동) 3층 푸른신문 편집부 앞
E-mail:pr5726000@naver.com

→ 응모엽서에 성명과 우편번호를 반드시 적어 주세요.

▶정답자 발표: 1,201호

<가로열쇠>

- 구세군 등의 단체에서 연말에 불쌍한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길가에 걸어 놓고 성금을 걷는 그릇.
- 손윗사람이 손아랫사람을 사랑함. 또는 그런 사랑. 특히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을 이른다.
- 주색과 잡기 따위의 허랑방탕한 짓을 많이 하는 사람. 저 친구 순 ○○○인 줄 알았더니 의외로 순수한 구석이 있네.
- 장하고 씩씩한 사나이라는 뜻으로 남자를 일컫는 말.
- 손님이 주문한 요리와 어울리는 와인을 손님에게 추천하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 ‘언니가 동생을 근심하는 건 ○○하지 않아요?’에서 앞의 앞뒤 사정을 놓고 볼 때 마땅히 그러하다는 뜻을 가진 ○○에 들어갈 단어.
- 근거가 없음. 또는 터무니없음. 그 소문은 ○○○○으로 밝혀졌다.
- 영화를 만들기 위하여 쓴 각본. 장면이나 그 순서, 배우의 행동이나 대사 따위를 상세하게 표현한다.
- 늘 정하여 놓고 거래를 하는 곳. ○○ 가게.
- 왕실의 근친이나 신하가 강력한 권세를 잡고 온갖 정사를 마음대로 하는 정치.
- 일정한 거처 없이 길거리를 떠돌아다니는 사람.
- 노인을 대상으로 돈을 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시설, 휴양 시설 따위를 갖춘 마을.

<세로열쇠>

- 남이 하는 말이나 행동을 그대로 옮기는 짓.

- 자기와 관계있는 것을 남에게 드러내어 뽐냄. 또는 그렇게 뽐낼 만한 거리. 돈 ○○을 늘어놓다.
- 남의 잘못이나 결점을 책잡아서 나쁘게 말하는 근거.
- 삿을 받고 남의 일을 해 주는 사람. ○○을 고용하다.
- 고려·조선 시대에, 정사를 논의하고 풍속을 바로잡으며 관리의 비행을 조사하여 그 책임을 규탄하는 일을 맡아보던 관아.
- 역울한 일이나 잘못된 일, 딱한 사정 따위를 말함. ○○○을 늘어놓다.
- 조선 세종 때의 과학자. 간의·혼천의 따위의 천체 관측기와, 앙부일영·흙경각의 옥루와 같은 시계 및 세계 최초의 우량계인 측우기와 수표를 만들어 과학 발전에 공헌했다.
- 값을 깎는 일.
- 재미있게 말하거나 강조하여 말할 때, ‘당연하다’의 뜻으로 쓰는 말. “지금 밥 먹을 거지?” “○○이지.”
- 영조의 둘째 아들. 영조의 명으로 뒤주 속에 갇혀 굶어 죽었다.
- 얼마라든지 혹은 어떻게 하리라고 미리 정한 것이 없이. 그들은 보수도 정하지 않은 채 ○○○일을 시작했다.
- 도시에서 떨어져 있는 지역. 주로 도시보다 인구수가 적고 인공적인 개발이 덜 돼 자연을 접하기가 쉬운 곳을 이른다.
- 잘못된 답을 낸 사람.
- 이 사이에 긴 음식물의 찌꺼기를 빼내거나 닦아 내는데 쓰기 위하여 왁스를 먹여 만든 의료용 실.
- 좋은 운수. 또는 행복한 운수. 이 목걸이는 내게 늘 ○○을 가져다준다.



<1,051회 정답>



♣ ‘가족과 함께 풀어보세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본사 편집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2월 28일까지 도착된 엽서 중에서 추첨을 통해 상품을 드립니다.

주소를 정확히 기재해 주십시오. 당첨상품을 우송해 드립니다.

1,051회 퍼즐 상품 받으실 분

* 당첨상품은 우송해 드립니다.



최호림(달서구 월배로)
정군재(수성구 범안로)
박명성(달성군 다사읍)

정선우(달성군 유가읍)
배건후(북구 관음로)
박신화(동구 화랑로)

김미준(달서구 대천동)
이현우(달서구 월성동)
윤효경(달서구 감삼동)



자동차극장 관람권 1매 ☎ 984-8008

장지은(달서구 감삼동)
김미준(달서구 이곡동)
정동수(달서구 본동)



푸른신문

대표전화: (053) 572-6000 팩스: (053) 572-6006
www.prsinmun.co.kr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323길 13(감삼동) 3F (우편번호: 42640)

▶등록일 2000년 10월 17일 ☑은행계좌입내
▶등록번호 대구다 01130 SC 제일은행 556-20-214625
▶간별 주간 예금주: 푸른신문(사법적)
▶인쇄처 미디어프린팅넷(株)
▶발행인 서범석
▶편집인 서범석 ※구독료 1년 13,000원

본지는 주간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크리스마스 케이크의 주인공은?

푸른방송 결합상품(방송+인터넷) 가입하시면 추첨을 통해 <케이크 쿠폰>을 드립니다.
달콤한 케이크 선물 받고 가족과 함께 크리스마스 홈파티를 즐겨보세요.

※경품 : 파리바게트 생팔기 우유생크림케이크 (3만원상당)

푸른방송에 산타 선물이 펑펑!

아이들의 인기 콘텐츠는 다~ 모았다!
기간 중 <키즈월정액>상품에 가입하시면 추첨을 통해
<어린이 인기 장남감>을 드립니다.
<푸른방송 키즈월정액>으로 즐거운 연말 보내세요.

※푸른방송 키즈월정액 상품 :
수퍼키즈통합무제한, 키즈무제한, 보로로TV, 핑크퐁TV, EBS키즈, 캐리TV, BBC키즈

